

63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2016 II

이병욱

서문

나는 왜 글을 쓰는가? 근원적 질문을 던져 본다. 작가도 아닌 것이, 시인도 아닌 것이 블로그에 매일 글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쓴다고 말한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하루에 하나 쓰는 것이다.

나의 글쓰기는 의무적 글쓰기이다. 매일 숙제하듯이 하루 한편 이상 글을 올린다. 주로 아침에 쓴다. 정신이 맑을 때 쓰는 것이다. 일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올린다. 대개 아침 9시 이전에 마친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글이 때로 길어질 수 있다. 오전 일과를 글쓰기로 보낼 때도 많다. 글에 열중하다 보면 점심시간이다. 때로 점심 너머 끝날 때도 있다. 하루종일 쓸 때도 있다. 그렇게 해서 모으고 모아진 것이 6,500개가 넘는다.

이 자리에서만 내리 15년 썼다. 오피스텔에 작은 사무실을 임대한 것이 2007년 말이니 올해로 15년 되었다. 그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6천개가 넘는 글을 썼다. 거의 매일 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되었다. 밥 먹는 것이나 똑 같다. 매일 밥 먹듯이 매일 글을 쓴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되고 난 다음에 시간부자가 되었다.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더 많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인터넷 가지고 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럴 때 글을 쓴 것이다. 글을 쓰면 시간이 잘 갔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필을 썼었다. 엠에스워드(MS Word)로 한 페이지 채우기도 힘들었다. 블로그 초창기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글이 길어졌다. 경전과 주석을 근거로 하여 쓰다 보니 더 길어졌다. 그에 따라 글 쓰는 시간도 늘어 났다. 매일 오전은 글쓰기로 보냈다.

어느 해인가 시가 쓰고 싶었다. 나도 시인이 되고 싶었다. 시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고상해 보일 것 같았다. 2014년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집에서 일터로 가걸어 가는 동안 시상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 멈추어서 스마트폰 메모 앱을 엄지로 쳤다.

시만 쓰지 않았다. 수필도 썼다. 시나 수필은 글이 짧다. 긴 글만 쓰다

가 짧은 글을 쓰다 보니 구분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블로그에 카테고리 하나 만들었는데 이를 ‘나에게 떠나는 여행’ 이라고 이름 붙였다.

나에게 떠나는 여행, 나의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시나 수필과 같은 짙막한 글 모음이다. 쓰다 보니 2014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473개가 되었다. 이를 책으로 엮고자 한다.

나에게 떠나는 여행 1권은 2014년과 2015년에 쓴 시와 수필에 대한 모음이다. 62번째 책으로 무려 122개의 글이 있다. 그러나 짙막한 글이기 때문에 321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다.

나에게 떠나는 여행 2권을 편집했다. 2권은 2016년에 쓴 시와 수필에 대한 것이다. 목차를 보니 64개의 글이다. 사진이 곁들여 있는데 210페이지에 달한다.

디카시라는 말이 있다. 페이스북에서 본 것이다. 디카와 시를 합한 말이다. 사진이 있는 시를 말한다. 그러나 요즘은 디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한다. 아마 스마트폰이 본격화 되기 이전에 유행한 시의 장르라고 본다.

나의 시는 디카시라고 볼 수 있다. 항상 디카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대상만 포착되면 일단 찍고 보았다. 사진을 보고 시나 수필을 쓴 경우도 많다. 반대로 글을 완성하고 난 다음 배경화면으로서 사진을 활용한 경우도 있다.

2016년에 쓴 시와 수필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 편집했다. 목차를 다는 것이 편집이다. 글은 거의 손대지 않는다. 글을 쓴 당시에 완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성된 글을 모아 놓으면 하나의 책이 된다.

2016년에 쓴 글을 빠른 속도로 스캔했다. 배경화면도 함께 스캔했다. 내가 쓴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다. 사진도 내가 찍은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다. 모두 내 것이다. 글을 보니 순수하다. 마치 순수한 마음을 보는 것 같다.

목차 11번을 보면 ‘웨딩드레스의 신부처럼 우아한 벚꽃구름’ 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이 글은 해마다 아파트 단지 벚꽃 나무에서 벚꽃이 필

때 감흥을 노래한 것이다.

“지난 수 년간
벚꽃이 필 때쯤이면
카메라를 들었다.

올해도 어김 없이
몽게구름처럼
벚꽃이 띠를 둘렀다.

도심에서 벚꽃이
눈송이가 되어 휘날릴 때
여기서는 절정을 이룬다.

사월의 벚꽃나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처럼 우아하다.

지난해 죽은 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생명의 봄이 왔다.”
(2016-04-09)

시는 주로 새벽이나 아침에 쓴 것이다. 시는 대부분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찬탄한 것이다. 생명에 대한 찬탄이기도 하다. 집에서 일터로 가는 길에, 학의천 길에서 본 것들이다.

목차 27번에 ‘내 나이가 십년만 젊다면’ 이라는 수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지금보다 십년만 젊다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아쉬워한다면 잘못 살았음에 틀림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모두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2016-06-19)라고 써 놓았다.

목차 53번 ‘종로3가에 가면’ 이라는 수필이 있다. 그때 당시 종로 3가 종로오피스텔에서 김도이 선생으로부터 위빠사나 수업을 들었을 때이다. 매주 한번 수행을 배웠었는데 종로3가 전철역에서 내려 걸어 갈 때 노인

들을 보았다.

종로3가는 노인들 천국이였다. 그때 본 느낌에 대하여 “종로3가를 지날 때 마다 기묘한 느낌을 갖습니다. 비틀거리며 힘없이 걷는 모습, 초점을 잃은 듯한 쾡한 눈동자,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종로3가에 가면 절망을 봅니다.” (2016-10-25)라고 써 놓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종로3가도 변했다. 익선동 상권이 생겨남에 따라 노인들 보기가 힘들어졌다. 요즘 종로3가는 젊은이들의 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6년전에는 늙은이들의 거리였다.

나는 왜 글을 쓰는가? 시간부자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쓰기도 했지만 요즘은 미래를 위해서 쓴다. 미래 누군가 내 글을 보아 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쓰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글을 남겼다. 신문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다산은 왜 그토록 많은 글을 남겼을까? 그것은 후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신이 억울하게 유배된 것에 대하여 글을 남기지 않는다면 역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산은 미래 사람들과 대화 하고자 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글을 남겼을 때 미래 누군가는 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인터넷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블로그라는 히트 상품이 생겨나서 글을 쓰게 되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생활화가 되었다.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글을 쓰게 되었다. 그에 따라 시도 쓰고 수필도 쓰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63 나에게 떠나는 여행 2016 II’ 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다.

책은 비매품이다. 출간도 되지 않는다. 다만 인터넷 블로그에 PDF로 만들어 올려진다. 누구든지 다운 받아 갈 수 있다. 글을 쓸 때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기도 했지만 동시에 미래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기도 하다.

책은 PDF로 나오게 되었다. 블로그에 파일이 올려져 있으므로 누군가는 다운 받아 갈 것이다. 누군가 단 한사람이라도 나의 글을 읽어 준다면 그것으로 나의 역할은 다한 것이 된다.

2022-06-24
담마다사 이병욱

목차

1. 오늘도 생각에 놀아나지 않기 위하여
2. 돈 보다 글을 더 사랑한다
3. 소유한 자들의 고통을 보라
4. 건강의 교만으로 질병의 과보를 받았을 때
5. 이미 다 지난 일인데
6. 다들 바쁘다는데
7. 어찌다 축생으로 태어났을까?
8.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봄인가!
9. 한번 떠난 님은
10. 모욕주고 내빼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면
11. 웨딩드레스의 신부처럼 우아한 벚꽃구름
12. '나 여기 있소' 화사한 겹벚꽃
13.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에
14. 인생비육십(人生非六十)이라는데
15. 용서
16. 쪽동백나무꽃을 보았더니
17. 세상에는 부처님의 범비가
18.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
19. 언제 해도 할 일이면
20. 온통 초록의 세상이 되었을 때
21. 동트는 새벽에
22. 나는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23. 짧은 쾌락 긴 고통
24. 마음은 제멋대로이다
25. 두 갈래 길에서
26. 고요함과 부드러움으로
27. 내 나이가 십년만 젊다면
28. 그대는 멈추어라
29. 낮의 절정 하지(夏至)에
30.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기 쉽다
31. 빛으로 소통되는 시대
32. 황홀한 저녁노을과 찬란한 슬픔
33. 행복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34. 과거생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35. 어떤 마음이 내마음인가

36. 불교의 윤회관을 믿으면
37. 수행자의 허물은
38. 생각대로 될 거야
39. 생각과 실제 사이에서
40. 장마철에 보는 모락산
41.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42. 급시우와 함께 오늘을
43. 마음의 장애와 대자유
44. 자연의 무상설법
45. 슬픔은 집착의 대상에서
46. 마라(mara) 하자는 대로
47. 탐진치에서 무거운 물질이
48.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거든
49. 비를 뿌리려거든
50. 무욕의 아침
51. 매일 부활하는 아침
52. 게으름과의 전쟁
53. 이 비 그치면
54. 종로3가에 가면
55. 첩첩산중 파노라마에
56.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어요
57. 잘 먹은 점심 한끼는
58.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59. 낮에 잘려 시든 갈대처럼
60. 온풍기를 보내며
61. 동짓날 이브날에
62. 우병우 청문회를 보고
63. 누가 기득권자인가
64. 마음의 찌꺼기

1. 오늘도 생각에 놀아나지 않기 위하여



새벽녘 잠자리는 달콤하다. 일어나야 하는데 잘 허용되지 않는다. 비몽사몽간은 아니지만 일어나는 생각은 뚜렷하다. 마치 정화된 물에 파란이 일어 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생각에 이끌려 가지는 않는다. 알아차림이 뚜렷한 것이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떠 오르지만 주로 건전한 생각들이다. 놓치기 싫어 스마트폰을 들어 메모해 둔다.

새벽의 정신상태는 일종의 사띠(sati)가 확립된 상태라 볼 수 있다. 몸과 느낌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좋을 듯 하다. 그래서 늘 사띠를 유지하라고 했나 보다. 잠들기 전에도, 잠자고 나서도 사띠를 유지하고 심지어 대소변을 볼 때도 사띠를 유지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루종일 사띠가 유지 된다면, 또 매일 사띠가 유지 된다면, 아니 평생 사띠가 유지 된다면 ‘깨달은자’ 가 될 것이다.

사띠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한 상태가 되어야 잘 유지 될 수 있다. 너무 즐겁거나 너무 괴로우면 사띠가 흩어지기 쉽다. 그래서 오로지 즐거움만 있는 천상에서 사띠가 유지 되기 힘들고, 오로지

괴로움만 지속되는 지옥에서 사띠가 역시 유지되기 힘들다고 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반씩 있는,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인간만이 사띠계발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최적의 장소는 ‘인간계’라 본다.

사띠는 ‘행주좌와어묵동정’ 간에 계발 된다고 하였다. 반드시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걸어 다닐 때도 일을 할 때도 심지어 대소변을 볼 때도 알아차리라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술을 마실 때도 알아차리면서 마셔야 할 것이다. 대화할 때도 알아차려야 한다.

만일 알아차림이 없다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치매 환자처럼 이전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축생과 다름 없는 삶일 것이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또렷하다면 절대 실수할 염려는 없을 것이다.

염주가 있다. 외출 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속에 있다. 처음 살 때는 손에 늘 쥐고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불교박람회에서 산 것으로 한손에 들어와 감촉이 좋다. 갑자기 염주를 떠 올리게 된 것은 사띠에 도움을 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염주를 굴리다 보면 잡생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도인들은 한손에 염주를 들고 다녔나 보다.

염주를 들고 다닐 수 없다. 불교인들만 사는 곳이라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종교인들과 함께 사는 공간에서 불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고객이 타종교인일 경우 불리하다. 일감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가급적 티를 내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염주처럼 확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 염주처럼 생긴 반지이다. 그래서일까 염주를 대신 할 수 있는 반지가 등장했나 보다. 반지를 염주처럼 돌리면 되는 것이다. 염주처럼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타종교인에게 부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 본다.

생각은 늘 일어나는 것이다. 사띠를 계발하지 않으면 생각에 놀아나기 쉽다. 생각에 한참 꼬달려 다니다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다. 생각에 놀아난 것이다. 행위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술이나 도박을 하고 난 다음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다. 즐거운 느낌에 놀아난 것이다. 늦게 알아차렸을 때는 알아차림이 아니다. 놀아난 것이다.

말을 하였을 때 알아차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마구 지꺼릴 것이다. 수다 떨고 잡담 하는 것을 말한다. 생각나는 대로, 땡기는 대로 지껄이다 보면 이미 늦다. 말에 놀아난 것이다. 이런 알아차림을 알아차림이라 하지 않는다. 놀아난 것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언제 알아차려야 하는가? 접촉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림은 접촉에서부터 시작 된다. 겨울철 찬바람을 맞고 걸어 갈 때 잔뜩 움추린다. 이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라든가, “에고, 추워 죽겠네” 라고 말하거나 생각한다면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다. 추위에 놀아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대로 들은 대로 해야 한다. 염처경 ‘신념처’ 에 있듯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차가우면 차가움을 아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화대(火大)’ 를 아는 것이다. 차가움과 뜨거움은 불의 요소이기 때문에 얼굴이 차갑다고 느껴지면 “아, 이것이 불의 요소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걸을 때 발바닥의 감촉이 딱딱하다면 ‘지대(地大)’ 라고 알아 차려야 한다. 지대는 부드럽거나 딱딱한 땅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걸을 때 앞으로 나아가거나 멈추어 섰을 때 ‘풍대(風大)’ 라고 알아차려야 한다. 움직이거나 정지하는 것은 바람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대(水大)’ 는 알아차리기 어렵다. 결합시키는 작용을 물의 요소, 수대라 하는데 신념처가 아닌 정신에서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다.

매일 길을 걸어 일터로 향한다. 이때 춥다고 잔뜩 움추리며 종종 걸음을 걷는다면 ‘하수’ 이다. 바람이 불 때도 비가 올 때도 알아차리면서 걸어야 한다. 차가움과 비와 바람을 대상으로 사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찬바람을 찬바람이라 알아 차리는 것을 넘어 불의 요소로 알아차렸을 때 우리 몸을 정확하게 본 것이다. 추위도 내가 추운 것이 아니라 오온으로 이루어진 ‘색온’ 이 추운 것이다. 물질의 다발이 불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느끼는 것이 ‘수온’ 이다.

접촉에 따라 느낌과 생각과 행위가 일어난다. 이를 수온, 상온, 행온이라 한다. 이런 수온, 상온, 행온을 아는 마음을 또 아는 마음이 ‘식온’ 이다. 추운 겨울날 비바람을 맞고 걸어 갈 때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온이 걸어 가는 것이다.

아침이 되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평안하다. 이런 기분이 하루 종일 유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학의천을 걸으며 사대를 알아 차릴 것이다. 아무리 겨울 바람이 추워도 내가 추운 것이 아니라 오온이 추운 것이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려도 지수화풍 사대의 작용이다. 먹을 때도 심지어 대소변을 볼 때도 사대의 작용이다. 그런 사실을 늘 알아차리라고 하였다.

접촉이 일어 났을 때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각에 놀아 났을 때 알아차리면 늦다. 몸으로 말로 놀아 났을 때 알아차리면 이미 늦은 것이다. 놀아나기 전에 느낌을 알아 차리는 것이다. 잠잘 때까지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도 행주좌와어묵동정간에 늘 깨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이다. 오늘도 생각에 놀아나지 않기 위하여!

2016-01-11
진흙속의연꽃

2. 돈 보다 글을 더 사랑한다

내키지 않았는데

정말 내키지 않았다. 물건까지 만들어 달라는 고객의 요구를 들어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수용하기로 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수용하는 순간 결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최근 두 세달 동안 몇 건의 대금이 전혀 결재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정을 들어 보니 통장이 압류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하던 일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를 갈아타며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전 업체의 대금을 결재 하지 못하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새로운 업체를 찾아 또 외상으로 물건을 맡기는 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계 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만들어 달라고 한다. 물론 돈은 주겠다고 한다. 어디서 돈이 나올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매정하게 거절 할 수 없어서 물건까지 만들어 주기로 했다. 울며 겨자 먹기이다. 그러나 기분이 몹시 좋지 않다. 내키지 않는 일을 하고서 한동안 멍하였다.

사기꾼이 되는 것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기꾼이 되고 싶어서 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제때에 자금 결재를 하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결재를 못하는 것이다.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경계 하게 된다. 그리고 슬슬 피한다. 거래 해 보았자 받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미 마음 속으로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어 놓은 것이다.

주변에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다. 작은 업체나 개인사업자들과 주로 거래 하다 보니 돈이 없어서 찢찢 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단 몇 십만원도 결재 못하여 결재가 무한정 미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밀리고 두 번 밀리고, 세 번 밀리다 보면 가망성이 없다. 회복이 안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돈 받기를 포기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신용불량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체로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다. 크게 사업을 일으켜 큰 돈을 굴리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수십억원을 굴리던 사람들은 이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거래 해 보았자 못 받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돈이 사람의 신용을 좌우한다.

여기에 인격이나 PHD 타이틀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오로지 지금 여기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에 따라 신용이 결정된다.

내 시간을 떼 먹고 달아 났으니

신용불량자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남는 것은 빚밖에 없다.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 한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이라 한다.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았을 때 그 금액은 천문학적이다. 개인이나 금융권 등에서 빌어 쓴 빚이다. 그럴 경우 빚독촉을 받게 되는데 심하면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빚이 갚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낚시터나 깊은 산속에 들어 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빚이 탕감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빚쟁이로 살아 가야 한다.

돈을 떼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 없다. 더구나 자신의 전재산을 다 투자 하여 떼인 경우 삶의 의욕을 포기 하기 쉽다. 그 돈이 어떤 돈일까? 그야 말로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돈이다.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력을 투자한 것이다.

돈을 떼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투자한 시간이 아까울 것이다. 그래서 이마의 땀으로 팔뚝의 힘으로 번 돈은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때에 결재를 하지 않고 심지어 떼어 먹는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말긴 자신의 전재산을 찾지 못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잃은 것은 돈일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잃어 버린 것은 돈을 버는데 투자한 시간이다. 시간을 잃어 버린 것이다. 돈을 떼 먹고 달아난 자는 내 돈을 떼 먹은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떼 먹은 것이다. 그래서 돈을 떼 먹고 달아난 자들이 오래 못사는 모양이다. 내 시간을 떼 먹고 달아 났으니 그 시간만큼 목숨이 단축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도시의 들개처럼

일인사업자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지 십년이 되었다. 이전에는 직장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였다. 떼 되면 월급이 나와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황야'에 버려진 느낌 이었다.

마치 도시의 들개처럼 일거리를 찾아 이곳 저곳을 방황하였으나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이전에 했던 일을 경험 살아 현재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 나가게 되었을 때 마치 야생의 사자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갇힌 사자와 같은 신세이었다.

동물원에서 사자는 사육사가 주는 고기만 먹고 자란다.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 하지만 야성이 없다. 겉모습은 사자로 보이지만 사실상 ‘배부른 돼지’에 지나지 않는다.

사자는 초원에 있을 때 야성이 발휘 된다. 그래서 작은 먹이라도 최선을 다한다. 먹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굶어야 한다.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일인사업이라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 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생존본능이 생겨난다.

사기꾼 소리 듣지 않기 위하여

사업을 하다 보면 야생의 사자처럼 어떤 경우에서든지 살아 남는다. 그런데 살아 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신용’이다. 한번 신용을 잃으면 다시는 거래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기는 지켜 주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때에 결제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신용이 쌓이게 되면 계속 거래 하게 된다.

사업을 처음 시작 하게 되었을 때 신용이 생명임을 알았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전 일이 생각났었다.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샘플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신만의 생각이다.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돈이 투자 되었을 경우 돈을 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사기꾼”이라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었다.

불현듯 그 일이 생각 나서 수 년전 받은 명함을 찾아 내어 연락을 하였다. 그리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비록 작은 금액에 지나지 않지만 빚쟁이가 되기 싫었던 것이다. 그러자 상대방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시니 성공할 것입니다.” 라는 말도 해 주었다. 사업초창기에 이런 말을 들어서일까 아직까지 신용불량이라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다.

돈 보다 글을 더 사랑한다

일인사업자로서 일도 하고 글도 쓰며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있다. 일을 하면 돈이 들어와 생계가 유지된다. 글을 써 놓으면 남는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려니 하루가 매우 바쁘다.

일이 없을 때는 글을 쓴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글쓰기를 빠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일과 글쓰기로 보낸다. 이는 다른 말로 시간을 투자한 것이다. 그래서 일의 결과로서 돈이 생겨나는 것은 시간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돈은 시간과 같은 개념이다. 글을 썼을 때 역시 시간이 투자된다. 이럴 경우 역시 글은 시간과 같은 개념이다.

돈은 시간이고, 또 글은 시간이다. 그런 돈을 누군가 떼어 먹는다면 나의 시간을 도둑질 해 간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도둑질 한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남의 시간을 도둑질 하였으니 그 시간만큼 자신의 생명이 단축된다고 보면 틀림 없다. 글 역시 시간이다. 그런데 글은 떼일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한번 써 놓으면 남는다.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글이다. 그래서 돈 보다 글을 더 사랑한다.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베풀어야 할 것이다. 재보시이든 법보시이든 많이 베풀었을 때 오래 잘 살 수밖에 없다. 특히 빛이 없어야 한다. 빛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단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마의 땀으로 팔뚝의 힘으로 번 돈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나 빛쟁이들은 베푸는 삶을 살 수 없다. 소송에 걸린 자나 병에 걸린 자 역시 베푸는 삶을 살 수 없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 그들이 하루 빨리 빛이나 소송, 병에서부터 빠져 나와 베풀며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소유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근면한 노력으로 얻고,
완력으로 모으고, 이마의 땀으로 벌어들인
정당한 원리로 얻어진 재물을 소유한다.”
라 생각하며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향유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근면한 노력으로 얻고,
완력으로 모으고, 이마의 땀으로 벌어들인
정당한 원리로 얻어진 재물을
향유하며 공덕을 베푼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빛없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에게도
어떠한 것에도
많건 적건 빛을 지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허물없음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신체적으로 허물이 없고,
언어적으로 허물이 없고,

정신적으로 허물이 없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A4.62)

2016-01-15
진흙속의연꽃

3. 소유한 자들의 고통을 보라



부처님이 사왓티 제따숲의 아나타뻘디까 승원에 계실 때 한 재가 신자가 찾아 왔다. 찾아 와서는 ‘할 일로 바빴기 때문에 자주 친견하러 오지 못하였다.’ 고 하였다. 그 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감흥어를 읊었다.

Sukhaṃ vata tassa na hoti kiñci
Saṅkhātadhammassa bahussutassa,
Sakiñcanaṃ passa vihaññamānaṃ
Jano janasmim paṭibaddharūpo

[세존]

“가르침을 헤아리고 많이 배운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행복이다.
무엇인가 소유한 자들의 고통을 보라.
사람이 실로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것이다.” (Ud.13, 전재성님역)

주석에 따르면 가르침을 헤아리는 것은 사성제를 두루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많이 배운 자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진 자를 말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행복이라 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갈애를 통해서 물질 등 오온 가운데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 행복임을 말한다.

무엇인가 소유한 자들의 고통이란 무엇일까? 부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공덕을 보고 무엇인가가 있는 것에서 재난을 보았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 아니다.’ 라 하였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유한 자는 고통스런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들에게 묶여 있다고 했다. 범구경에 따르면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자식, 하물며 재산이라” (Dhp62) 라 하였다.

2016-02-07
진흙속의연꽃

4. 건강의 교만으로 질병의 과보를 받았을 때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아파 보아야 인격적으로 성숙해 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아픔이라는 것이 육체적 아픔일수도 있고 정신적 아픔일 수도 있다.

몇 일 감기에 걸렸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다. 과로라기 보다 몸 관리를 잘못 하였기 때문이다. 흔히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는 말이 있지만 건강할 때 ‘자만’ 하기 쉽다. 지금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무리하기 쉽다. 특히 욕망에 휘둘리기 쉽다. 그 결과는 ‘저항력’ 약화이다.



I'm cold.

Cold

저항력이 약화 되어서 감기에 걸렸다. 그것은 음주영향이 매우 크다. 불교에서는 오계라 하여 음주를 금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음주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각종 모임에서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노동이다.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힘든 노동이 끝난 다음에는 무언가 보상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

노동자체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허기가 저서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음주하기 쉽다.

일은 힘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힘을 필요로 하고 또한 노동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노동이 끝났을 때 이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허기가 진 상태에서 먹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상이 된다. 그 과정에서 알코올은 음식을 소화시켜 주고 식욕을 자극하여 몸과 마음을 충분히 보상해 준다.

감기가 걸린 원인을 조사 해 보니 음주가 원인이었다.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식사와 결들인 반주개념의 음주가 지나친 것이다. 이는 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탓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인관계, 재정문제 등 고질적 스트레스와 함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먹게 되는데 과음 함으로 인하여 몸의 저항력이 약화 된 것이다. 그 결과가 감기로 나타난 것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매달 청구서는 꼬박꼬박 날라 오고 지급 해야 할 것은 많다. 만일 들어 오는 것 없이 나가는 것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몇 달 못 가서 통장의 잔고는 바닥날 것이다. 더구나 일한 대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 간다.

매달 청구 되는 고정적 비용은 마치 ‘밀물’ 과도 같다. 수평선 저 멀리서 물이 들어 올 때 누구도 멈출 수 없다. 마치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인해전술 같은 것이다. 수입이 없다면 매달 밀물처럼 밀려 오는 청구서와 고정비용에 당해 낼 재간이 없다.

살다 보면 고정비용은 갈수록 늘어만 간다. 병원에 한번 가지 않지만 청구된 건강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현재 수입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꼬박꼬박 징수해 간다. 산정방식이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해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아파트와 사무실 관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일까? 지난해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든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다면 부도의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수입을 늘려야 한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없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가리지 않는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마다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다행스럽게 불교에서 금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일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허기진 배를 움켜 잡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한다.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노동을 한다는 것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과도하면 탈이 나게 되어 있다. 음주도 그런 것 중의 하나이다.

감기에 걸렸어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의사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십년 동안 건강검진 한 번 받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칭찬은 커녕 비난 받을 일이다. 그러나 병원에 가는 케이스가 있다. 그것은 이가 아팠을 때이다.

감기에 걸렸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나아 보기로 하였다. 첫 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찬바람을 쏘이지 않고 옷을 많이 껴 입어서 보온을 하였다. 둘 째 잘 먹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렇다고 기름진 음식이 아니다. 집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것이다. 셋 째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셨다. 몸 안도 따뜻하게 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틈만 나면 따뜻한 물을 마셨는데 녹차를 주로 활용하였다. 다섯 째 집안에 있는 약을 활용하였다. 이전에 먹다 남은 감기약을 활용한 것이다. 이런 행위 역시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효과가 있었다.

감기에 걸렸어도 해야 할 일은 하였다. 일을 하고 글을 쓰는 등 해야 할 일을 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과 일터만 왕복 하였다. 그 결과 삼일 째 되는 날 몸의 저항력이 강화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순간 저항력이 생겨났음을 스스로 느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감기에서 벗어났다는 확신이 들었다.

감기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깨달은 다음 ‘보림(保任)’이라 하여 깨달음의 이치를 뚜렷하게 하여 항상 구현되도록 행하는 과정이 있듯이, 감기에서 벗어났을 때 일정기간 몸조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 더 조심하였다.

몸을 보람하기 위하여 영양보충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모처럼 곰탕집으로 향하였다. 유명하다는 N곰탕집이다. 종종 기운이 떨어질 때 찾는 곳이다. 그런데 가격이 올랐다. 이전에는 7천원 이었으나 천원이 올라 8천원 한다. 이렇게 물가는 슬금슬금 올라 가는데 사람들의 수입은 예전 같지 않다. 가면 갈수록 살기 어려워 지는 세상 같다.

이제 감기에서 벗어 났다. 몸을 안팎으로 따뜻하게 하고 잘 먹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자 기분이 매우 상쾌 하다. 감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음주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과도한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주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저항력이 약화 되어 더 큰 병에 걸릴지 모른다. 왜 음주를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라 본다.

사람은 아파 보아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만용을 부리기 쉽다. 이는 건강의 교만이다. 사람은 늙어 보아야 젊음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젊을 때 젊음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역시 만용을 부리기 쉽다. 이는 젊음의 교만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부처님은 건강의 교만에 대하여 “나는 질병에 종속되었으며 질병을 벗어날 수 없다.” (A5.57)라고 했다. 또 부처님은 젊음의 교만에 대하여 “나는 늙음에 종속되었으며 늙음을 벗어날 수 없다.” (A5.57)라고 했다. 누구든지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고, 누구든지 늙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잘 관찰하였을 때 건강의 교만과 젊음의 교만은 사라질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만 하였을 때 건강이 무너진다. 그 결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건강의 교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무슨 이유로 ‘나는 질병에 종속되었으며 질병을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여자나 남자나 집에 있는 자나 출가한 자나 자주 관찰 해야 하는가?

수행승들이여, 못삶들은 건강한 시절에 건강의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에 빠져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한다. 그가 그 사실을 관찰하면, 건강한 시절의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버려지거나 약해진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이유로 ‘나는 질병에 종속되었으며 질병을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여자나 남자나 집에 있는 자나 출가한 자나 자주 관찰 해야 한다.”

(Thānasutta -사실의 경, 양곳따라니까야 A5.57,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건강의 교만에 빠진 이유에 대하여 ‘악행’ 을 들고 있다. 그것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악행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관찰하면 건강의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항상” 나는 질병에 종속되었으며 질병을 벗어날 수 없다.” 라고 관찰하면서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병이 걸렸을 때 병이 걸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날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자만’ 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하여 막행막식한다면 반드시 질병의 과보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건강의 교만으로 인하여 질병의 과보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 가짐이어야 할까? 부처님은 ‘업이 자신의 주인’ 임을 관찰하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무슨 이유로 ‘나는 업의 소유자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의 원인자이고 업의 친연자이고 업의 의지처이고 내가 선이나 악을 지으면 그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자나 남자나 집에 있는 자나 출가한 자나 자주 관찰 해야 하는가?

수행승들이여, 못삶들에게는 신체적으로 악행, 언어적으로 악행, 정신적 악행이 있다. 그가 그 사실을 자주 관찰하면, 그것은 모두 버려지거나 약해진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이유로 ‘나는 업의 소유자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의 원인자이고 업의 친연자이고 업의 의지처이고 내가 선이나 악을
지으면 그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자나 남자나 집에 있는 자나
출가한 자나 자주 관찰 해야 한다. (A5.57)

2016-03-03
진흙속의연꽃

5.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고객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메일을 받았다. 업무용 메일이다.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메일은 미디어다음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메일을 사용한다. 그러나 업무용 메일은 홈페이지 주소와 같은 전용메일을 사용한다. 고객으로 받은 메일이다.

메일을 보내 온 L님과 거래한지 꽤 오래 되었다. 아마 칠 팔 년 된 것 같다. 그러나 L님은 신용불량자이다. 사업을 하다 망해서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연락이 끊어진 지 삼 사 년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메일이 날아 온 것이다.

L님은 메일에서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요? 지금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라 하였다. 이 문구를 접하자 착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반갑기도 했다.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결제해 준다니 감동한 것이다.

이미 다 지난 일인데

L님은 몇 년 만에 불쑥 메일을 보내 왔다. 이어지는 글을 보면 “그럴려고 한건 아닌데 결제를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몸도 아프고... 사업도 접게 되고..... 신불자도 되고.... 하여간 그간 제 사정이... 말이 아니여서 연락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변 정리를 다시하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결제 금액과 결제 계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 왔다.

L님은 한때 잘 나가던 벤처회사의 연구소장이었다. 비록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밤을 새다시피 하며 일을 몰두하였다. 그러나 모든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홀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 과거 인연이 있어서 도와 주었다. 처음에는 결제가 잘 되었다. 그러나 이후 한 일에 대해서는 결제가 자주 늦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다 어느 때부터 딱 끊어졌다.

L 님의 메일을 받고 비록 오래 되었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일었다. 그래서 이전의 계산서를 찾아 보았다. 그러나 몇 년 전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연도별 계산서를 찾으려 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오래 전의 일이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끝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L 님을 생각해서라도 계산서를 찾아 보아야 했다. 그러나 찾기가 귀찮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만 두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일입니다. 다시 시작 하면 되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신다 하니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신을 발송하였다.

세금계산서 변천사

이전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모아 두었다. 2007 년부터 작성하였으니 햇수로 10 년 된 것이다. 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거래명세표와 함께 작성한다. 계산서는 국세청신고용이고 명세표는 거래업체용이다. 이렇게 반드시 두 장을 작성해야만 거래가 성립된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부가세 10%가 붙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 개월에 한번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루라도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 한달을 어기면 벌금 액수는 더 커진다. 세금을 제 때에 내지 않거나 체납하면 견딜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철만 되면 신경이 곤두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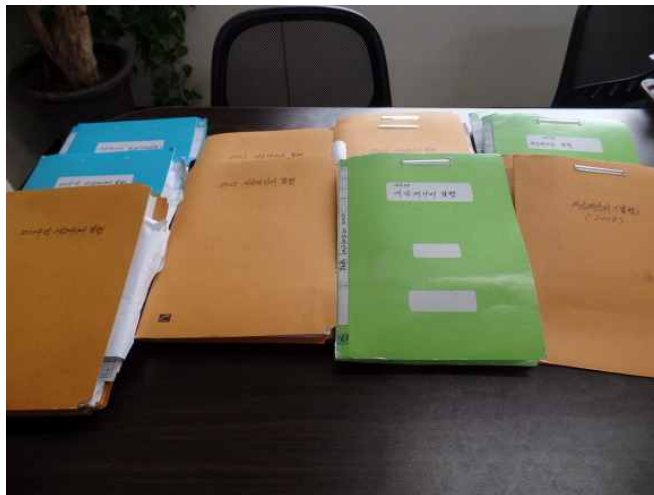
지난 10 년 동안 계산서에도 변동이 있었다. 처음에는 수기로 작성하였다. 문방구에서 세금계산서 양식을 구입하여 거래내역을 기입한 후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때 상호와 사업자등록증 번호도 모두 수기 하였다. 이런 작업이 불편하여 고무판을 만들었다. 사업자정보가 들어간 고무판을 청색스탬프에 찍어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계산서 작성하는 것이 일하는 것 못지 않게 큰 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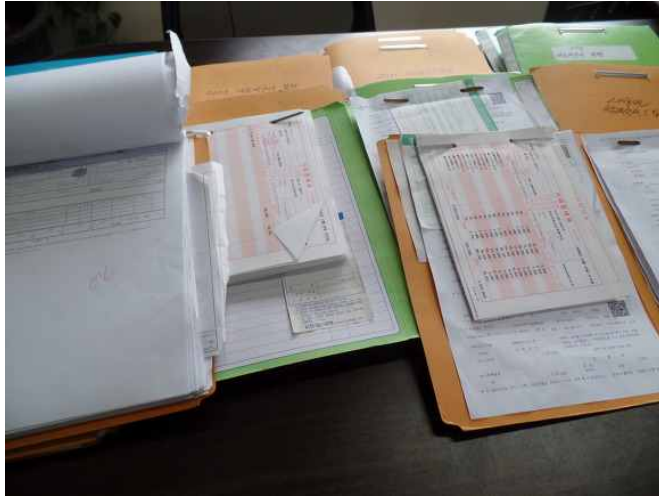
계산서의 진화는 계속되었다. 2008 년이 되자 계산서 양식이 인쇄된 계산서전용용지가 등장하였다. 관련 업체에서 소개 받았는데 명칭은 ‘거래돌이’ 이었다. 원리는 간단하다. 먼저 거래돌이 양식을 다량구매한다. 계산서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작성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프린트 하면 된다. 이때 역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전에 수기로 하던 것과 비교하여 진일보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시간을 요하는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계산서전용용지의 시대는 오래 가지 못하였다. 2010년부터 전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신고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사 놓은 수 백장의 계산서용지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면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불과 2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지금은 전자시대이다. 2010년 들어서자마자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이제는 오로지 전자신고만 인정되고 있다.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아 불편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을 발휘하여 엄청나게 효율이 향상되었다. 수기로 작성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거의 10배 이상 시간이 단축된 것이다. 무엇보다 6개월에 한번 있는 부가세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어서 클릭 몇 번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다.





“사기꾼이 되고 싶어서 사기꾼이 되나?”

L 님의 계산서를 결국 찾지 못하였다. 아니 굳이 애써 찾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이다. 보통 결제가 6 개월 밀리면 포기한다. 일반적으로 ‘익월결제’ 라 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후 다음달 결제 해 주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 이를 어기는 경우가 있다. 결제할 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두 달, 세 달 밀린다. 세 달 이상 밀리면 가능성이 없다. 그럴 경우 깨끗이 포기하고 만다.

처음에는 밀린 돈을 다 받아 내려 하였다. 그러나 결제할 능력이 없었을 때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말에 “사기꾼이 되고 싶어서 사기꾼이 되나?”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공학박사타이틀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때에 결제 하지 못하면 사기꾼소리 듣는 것이다.

수 많은 업체와 거래를 한다. 일을 맡기면 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러나 제 때에 결제하지 못하는 업체도 매우 많다. 큰 금액이 아님에도 결제하지 못할 정도이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 틀림 없다. 그럴 경우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마음의 부담을 덜어 버리기 때문이다.

불선업(不善業)을 짓지 않기 위하여

결재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불편하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이는 결재하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렇게 쌍방이 불편하다면 이는 ‘업(業)’을 짓는 것이 된다. 쌍방간에 업을 짓는 것이다.

모든 거래는 결재로서 완결된다. 지금까지 십년 동안 수 많은 업체와 거래 하였다. 그에 따라 수 많은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렇다고 모두 다 기억할 수 없다. 왜 그럴까? 결재가 이루어지는 순간 깨끗이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결’로 남아 있을 때 늘 마음에 남게 된다. 그래서 끝까지 기억하게 된다.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늘 “내 돈 언제 받나?” 라며 살아 갈 것이다. 액수가 크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

법우님 중에 한분은 사람에게 투자하였다. 지난 2000년대 ‘벤처광풍’이 불 때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투자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맡겼다고 한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모양이다. 자취를 감춘 것이다. 생명과도 같은 돈을 때인 것이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기 위하여 불교교양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계산서를 발행하면 결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더구나 미결상태로 세 달, 여섯 달, 일년이 가면 늘 마음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바로 이런 것이 업이 된다.

계산서를 발행하여 결재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서로 마음의 찌꺼기가 남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결재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구나 미결상태일 때 마음의 부담으로 남는다. 빌린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단돈 만원이라도 빌려준 사람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돈에 대한 집착이다.

미결상태일 때 업을 짓는다. 갚지 않은 자 뿐만 아니라 받을 사람도 업을 짓는다. 내 돈 떼어 먹고 달아난 자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불선업(不善業)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미결상태가 오래 갈 경우 깨끗이 포기하고 만다.

마음의 부담을 털어 버리고

오랜 만에 L님이 메일을 보내 왔다. 몇 년 만에 보내 온 메일에서 밀린 돈을 갚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갚겠다고 한 것으로 충분하다. 마음의 부담을 털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일을 새롭게 시작하면 도와 주겠다고 했다.

2016-03-12
진흙속의연꽃

6. 다들 바쁘다는데

휘장을 만들었는데

최근 휘장을 하나 만들었다. 흔히 말하는 깃발이다. 출신학교와 학과와 학번이 들어간 휘장이다. 만들게 동기는 ‘조사’에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경사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근조라는 작은 휘장과 경축이라는 작은 휘장이 있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조사에 사용될 것 같다.

휘장을 만들게 동기는 조사에서 썰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누구나 한번쯤 겪어 보는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이 별로 없다면 썰렁할 것이다. 더구나 조화도 없고 휘장도 없다면 더욱 더 썰렁할 것이다. 썰렁한 장례식장에서 힘이 되어 주기 위해 휘장을 만들었다.

휘장을 만드는데 힘이 되어 준 친구가 있다. 특정 분야를 리드하는 아이티업체 CEO이다. 수 백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들에게 월급을 준다는 것은 애국하는 것이다. 그런 친구가 아름다운 마음을 내어 휘장을 만들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는다. 쉽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되는 문제들이다. 누군가 ‘목구멍포도청’ 타령을 하며 생계걱정을 하지만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또 누군가는 노후문제를 걱정하지만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런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생계가 가장 큰 문제라면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된다. 노후문제가 걱정된다면 역시 지금 여기서 노력하면 해결된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있다. 그것은 ‘생노병사’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생노병사야말로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생노병사는 결국 ‘생사’의 문제이다.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다. 태어남이 없다면 죽음도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기대수명대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대수명은 문자 그대로 기대하는 수명일 뿐이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다.

기브애틀테이크(Give & Take)

요즘은 문자로 소통하는 시대이다. 각종 대화방이 있어서 서로 문자로 소통한다. 그러다 보니 종종 연락 받는 것이 있다. 그것은 ‘경사’와 ‘조사’이다. 대체로 경사라 하면 결혼식을 의미하고 조사라 하면 장례식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혼자서 살 수 없다. 요즘 TV에서 방영하는 ‘자연인’ 처럼 산속에서 나홀로 살아가지 않는 한 사람들과 이런 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 간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도움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거래 하는 것 과도 같다.

거래는 주고 받는 것이 원칙이다. 영어로 ‘기브애틀테이크(Give & Take)’이다. 만일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다면 거래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오로지 주기만 하고 오로지 받기만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다. 그러나 남녀간의 애정은 주고받기식이 되기 쉽다.



기브애펀티크 방식은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피하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마치 장사하는 것 같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행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해 관계를 떠난 순수한 모임에서도 보인다는 것이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친구

사람들은 이런 저런 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나 손익을 떠난 순수한 관계로 맺어진 관계를 말한다. 동창모임이나 종교모임, 또는 동호회 모임 같은 것이다. 이런 모임에서 철저히 주고받기식으로 일관한다면 순수하지 않다. 손해가 된다고 여겨지면 참가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반대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겪으면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본다. 이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다르고 성형 또한 서로 다르듯이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구성원들 생각 역시 다 다르다. 어떤 이는 매우 적극적으로 때로는 ‘헌신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매우 소극적으로 ‘방관자적’ 자세를 견지하는 이도 있다. 이런 태도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 것이다.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한다. 이럴 때 손을 내민다면 매우 감격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방관자적 자세를 취한다. 설령 같은 생각과 취미와 사상을 같이 하는 모임의 구성원들이라 하더라도 남의 일 보듯 한다. 왜 그럴까?

다들 바쁘다는데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 간다. 이 세상을 살아 가는 사람 중에 아마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깊은 산중에서 홀로 살아 가는 자연인 역시 무척 바쁘다. 혼자 살아 가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자연인도 바쁘게 살아간다. 도시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 가는 사람들 역시 바쁘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지는 않는다.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은 바쁠 이유가 없다. 게을러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은 여유 있어 보인다. 게으른

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바쁘게 살아 간다. 그렇다고 일년 내내 바쁠까? 아무리 바쁘다고 하여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쁠까? 아무리 바쁘다고 하여 잠잘 시간도 없을까?

사람들은 바쁘다고 한다. 대체로 바쁘다고 하면 면피 되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자신이 속한 각종 모임에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바빠서 못나간다는 것이다. 계중에는 진짜 바쁜 사람도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를 댈다.

사람들은 왜 바쁘다는 핑계를 댈까? 아마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주고받기식 거래에 익숙해서 일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멀리 하는 것이다.

경사나 조사 모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나가 보았자 시간낭비, 돈낭비, 정력낭비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만사제쳐 놓고 찾아 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해 관계를 떠난 동창모임이나 종교모임, 동호회 모임에서 경사나 조사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다.

관우(棺友)

모든 것을 이해득실로만 따지는 자들이 있다. 동창, 동호회, 종교 모임 등 순수 모임에 나가도 그만 안나가도 그만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경사와 조사 등 시간과 돈과 정력이 낭비 되는 모임에서 절정을 이룬다.

어떤 이는 친소관계를 따져서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친밀한 관계이면 참여하고 소원한 관계이면 참가 하지 않는 것이다. 경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사마저 친소관계를 따진다면 매우 삭막한 것이다.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바쁘다고 한다. 진짜 바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친구가 진실한 사람인 것이다. 그것은 참여로 이루어진다. 정말 바빠 참여를 못한다면 ‘대봉’ 이라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위기가 닥쳐 보아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바쁘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면책 되는 것이 아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손을 내미는 친구,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힘이 되어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고 도반이다. 나중에 관을 매 줄 수 있는 친구, ‘관우(棺友)’를 말한다.

2016-03-15
진흙속의연꽃

7. 어쩌다 축생으로 태어났을까?

흔히 ‘개팔자가 상팔자’라 한다. 분주하고 고생스런 삶을 살 때 개보다 못한 삶을 일컫는 말이다. 주인이 잘 먹여 주고 돌봐 주고 심지어 가족처럼 대하는 것을 볼 때 사람팔자 보다 더 나은 듯이 보여서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럼에도 개를 볼 때 마다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리 개팔자가 상팔자라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어쩌다 축생으로 태어났을까?”라는 연민이 있다.

대화방에 S거사님이 강아지 사진을 올렸다. 두 마리의 흰 강아지가 무언가를 열심히 먹고 있다. 마치 꼬리를 흔들며 먹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 또 한 사진을 보면 털이 복실복실하게 나서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강아지가 있다. 이 사진을 보고서 “어쩌다 축생으로 태어났을까?”라는 말을 남겼다.





대화방에는 스님도 있다. 충남 S시에 소재하고 있는 C사는 신도들뿐만 아니라 몇 분의 스님도 초대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강아지사진과 멘트를 보고서 “주인공을 찾으시면 알 수 있어요. 인연에 대해서도. OO 합장.” 이라 했다. 개가 축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주인공을 찾으시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축생으로 태어난 인연도 알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마치 화두를 대하는 듯 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들은 육도 윤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무명과 갈애 때문이다. 그래서 “무명에 덮인 못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S15.11) 라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량없는 윤회에서 우리는 언젠가 개로 태어난 적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한번만이 아니라 한량 없이 태어났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개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일어난다. 측은지심이다. 그렇다고 연민의 마음만 낸다면 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연민을 보내고 또 한편에서는 연민을 당한다면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이는 불행하고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지금 불행한 자가 있다. 더구나 가난하기 까지 하다.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도저히 살아 갈 수 없을 때 비참하게 보인다. 이런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연민의 마음을 낸다. 그런 연민의 마음이 지나치면 근심하게 된다. 연민이 근심으로 되었을 때 ‘불선업’ 이 된다.

불행하고 가난한 자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내는 것이 가장 공평할까? 그것은 ‘한 때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 때 저러한 사람이었다.” (S15.1) 라고 마음을 낼 것을 말씀 하셨다.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가 우월감에 따른 연민이나 연민이 지나쳐 근심걱정으로 전개 되는 것을 막는 최상의 마음이라 본다.

부자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행복하고 부자인 사람에 대하여 열등의식에 가득차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 때 저러한 사람이었다.” (S15.2) 라고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런 마음에 우월감, 동등감, 열등감이 자리 잡을 수 없다. 우리도 언젠가 불행하고 가난한 때가 있었고, 또 언젠가 행복하고 부유한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강아지를 보면 귀엽고 사랑스럽다. 그래서일까 가족처럼 아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이는 자식보다 낫다고 한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보다 자신을 알아 보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애완견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우월감이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의 말을 잘 듣는 강아지는 축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강아지를 가진자는 주인이고 말을 잘 듣는 강아지는 종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주종관계가 분명하였을 때 결코 공평한 관계는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도 한때 개로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묶이는 삶을 살았을 때 욕도를 윤회하게 되는데 개로서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어느 스님은 주인공 이야기를 하였다. 축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주인공을 찾으려면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축생으로 태어난 인연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 주인공만 찾으려면 모든 의문이 해결될 듯하다. 그 주인공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 주인공을 찾을 수 있을까?

누군가 선사에게 “개는 왜 축생으로 태어났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 “차나 한잔 하시게” 라며 동문서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라며 ‘역질문’을 받게 될지 모른다. 심하면 고탐소리를 듣거나 방망이로 맞을지 모른다. 왜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반문자적이고 반지성적 행위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분별하고 망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본래 없는 것임에도 “개는 왜 축생으로 태어났을까요?” 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분별망상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누군가 개를 쳐다 보고 “왜 축생으로 태어났을까?” 라며 측은지심을 낸다면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할까? 주인공을 찾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못살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귀여운 강아지들을 보면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 때 저러한 개이었다.’ 라고.”

2016-03-25
진흙속의연꽃

8.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봄인가!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봄인가! 사거리 양지바른 곳에 봄을 알리는 전령사 영춘화가 피어 있다. 매년 그 자리에서 보는 꽃이다. 봄이 되면 으레 피었으려니 하며 눈길을 보내는 곳이다. 개나리처럼 생겼지만 좀더 세련된 모습의 ‘영춘화’는 이제 봄이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 같다.



영상 5도 이상이 지속되면 봄이라 한다. 대략 3월 세째 주 정도가 해당된다. 또 하나의 봄의 조건은 꽃이다. 꽃이 피는 것으로 봄이 왔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나리와 진달래이다. 또 하나 더 든다면 목련이다.

도시에서 봄은 빠른 것 같다. 농촌이나 산골보다는 온도가 높아서 일 것이다. 밀집되어 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온도가 높다. 마치 열의 섬과도 같다. 열섬 같은 도시에서 이미 봄이다. 도시 양지바른 곳에서는 분홍진달래가 피고, 하얀목련이 피고, 노랑산수유가 한창이다. 어느 날 머리를 들어 세상을 보니 봄은 벌써 와 있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봄이 왔다. 생명의 계절이다. 부활하듯이 하나 둘
가지개를 편다. 벌거벗은 나무는 새 옷으로 갈아 입을 것이다. 그리고

화려한 꽃잔치가 시작 될 것이다. 늘 그렇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극적으로 변한다.

2016-03-26
진흙속의연꽃

9. 한번 떠난님은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은 아니네.
봄이 오는 들녘, 햇볕이 그림네.
야속하게 구름만 잔뜩있다.
때까치는 왜 이리도 울어 대는가.

또다시 봄이 왔네. 오고야 말았네.
인고의 시간을 견딘 들꽃이 반긴다.
이렇게 때 되면 봄이 오고 꽃이 피건만
한번 떠난님은 돌아 올 줄 모를까.

2016-03-26
진흙속의연꽃

10. 모욕주고 내뺀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면

봄이 왔다. 벚꽃이 피면 확실히 봄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래 된 아파트 단지에 삼십년 이상된 벚꽃나무에서도 꽃이 활짝 피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비교하여 5-6일 빨리 피었다. 이럴 때 걸음을 멈추고 꽃을 바라본다. 그리고 디카로 촬영해 둔다.



학의천도 봄이다. 노랑개나리와 벚꽃이 어우러져 이제 세상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것 같다. 능수버들에서는 벌써 새로운 잎파리가 나왔다. 앞으로 이삼주만 지나면 거리의 나무들은 새옷으로 일제히 갈아 입을 것이다.



꿈결 같은 학의천을 걸으면서 꽃에 취했다. 노랑개나리와 흰 벚꽃이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다워서 디카를 대었다. 그때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잘 보고 다니셔야죠?” 라며 소리친다. 그리고 힐끔보며 획 지나간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종종 이런 류의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생태하천 학의천은 안양천과 합류된다. 안양천을 따라 죽 가면 한강에 이르게 된다. 요즘에는 하천따라 자전거길이 형성되어 있어서 자전거만 타면 어디로든 갈 수 있다. 그런데 종종 불쾌를 당한다.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이 종종 한마디씩 툭 던지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주로 길을 방해한다는 이유이다. 이럴 때 상당한 불쾌를 경험한다. 그렇다고 쫓아갈 수 없다. 한마디 해 주고 싶어서 저 멀리 달아나 버렸기 때문이다.

꽃을 찍으려다 불쾌를 당하였다. 아침 평온했던 마음에 한 순간 산란되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맹이를 던졌을 때 파문이 이는 것 같다. 자전거통행을 방해한다 하여 한마디 툭 던지고 도망치듯이 내빼는 사람을 마치 닭쫓던 개모양 바라 볼 뿐이다.

모욕을 당하였을 때 화가 치밀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운전을 할 때 끼어들기하는 차를 보면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 성질 급한 사람은 보복하고자 할 것이다. 보복당하는 사람 역시 보복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말 것이다.

운전을 하다보면 이유없이 밀릴 때가 있다. 대부분 사고가 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나가다 보면 사고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왜 밀렸을까? 놀랍게도 난폭운전이 원인이다.

어느 운전자가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며 마구 달리고 있다. 그럴 경우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다. 앞차에 브레이크등이 켜지면 뒤차 역시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렇게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파문을 만드는 것 같다. 어느 미꾸라지 같은 운전자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모욕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 참기 힘들어 맞받아 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하였을 경우 싸움 그칠 날 없다. 더구나 주변에까지 영향을 주고 만다. 이럴 때 알아차려야 한다. 평소 수행을 한 사람이라면 좋은 시험 무대가 된다.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말로서 행위를 하면 업을 짓게 된다. 더 나아가 신체적으로 행위를 하면 더 큰 업을 짓게 된다. 언어로서 신체적으로 행위를 짓고 난 다음 알아차리면 이미 늦다. 그 전에 알아차려야 한다. 그럴 경우 “아, 내가 화가 치밀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더 이상 구업이나 신업으로 전개 되지 않는다.

불쾌로 인하여 화가 치밀었을 때 멈추어야 한다. 멈추지 않고 관성대로 해 버리면 업을 짓게 된다. 나중에 업만 남고 그 화는 온데 간데 없다. 그 화에 속은 것이다. 그 화에 놀아 난 것이다.

화에 놀아 나지 않으려면 마음을 돌려야 한다. 모욕주고 내뺄는 자전거운전자를 보면 화가 나지만 한숨 한번 크게 쉰다든가 “허허” 하고 웃어 버리면 그만이다.

2016-04-05
진흙속의연꽃

11. 웨딩드레스의 신부처럼 우아한 벚꽃구름

해마다 이맘 때쯤
서울대공원에서는
벚꽃이 구름을 이룬다.

지난 수 년간
벚꽃이 필 때 쫓이면
카메라를 들었다.

올해도 어김 없이
몽계구름처럼
벚꽃이 떠를 들렀다.

도심에서 벚꽃이
눈송이가 되어 휘날릴 때
여기서는 절정을 이룬다.

사월의 벚꽃나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처럼 우아하다.

지난해 죽은 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생명의 봄이 왔다.

2016-04-09
진흙속의연꽃

12. ‘나 여기 있소’ 화사한 겹벚꽃



청춘을 꽃이라 한다.
화사한 젊은 아가씨에게
자꾸 눈길 가듯이,
화려한 꽃의 향연에
시선이 머물다.

개나리도 벚꽃도 지고
새순이 돋을 즈음,
붉은 영산홍과 겹겹의 왕벚꽃,
그리고 이름 모를 꽃들이
‘나 여기 있소’ 하며 존재감을 알린다.

초록의 새옷으로 갈아입은
대지에 생명이 넘쳐난다.
비 갠 후 청명한 하늘처럼
확실히 살 맛 나는 계절이다.



2016-04-20
진흙속의연꽃

13.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에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대지는 깨끗해졌습니다.
일터로 가는 길에 본 이팝나무는
쌀나무라기보다 머리가 흰 백발같습니다.



빛나는 아침입니다.
지난해도 그랬듯이 연립주택은
온통 담쟁이로 덮였습니다.
신록의 잎파리가 아침해살에 빛이 납니다.



학의천에서 바라본 젊은 수리산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자본이 투입된
아파트단지로 인해 반쪽이 되었습니다.



학의천과 안양천이 만나는
쌍개울 쉼터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늘은 청명하고 바람은 부드럽습니다.
이미우이음악과 함께 빛나는 아침입니다.

2016-05-04
진흙속의연꽃

14. 인생비육십(人生非六十)이라는데



불두화의 육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피어납니다.
지금은 청년기로 연초록이지만
중장년기 때는 백색으로 변합니다.



비 갠 후 다음날 이어인지
빛나는 아침입니다
이른아침 내비산 관악산길
늘 그 자리에 불두화가 피었습니다.



관악산 팔봉에 올랐습니다.
거친 산길을 쉼없이 올랐습니다.
한발 한발 옮기다 보니 정상입니다.
인생길도 등산길입니다.



인생비육십(人生非六十)이라 합니다..
육십년 살다 보니
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오욕락의 인생입니다.



젊었을 때 재산도 이루지 못했고
학문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욕망과 분노와 사건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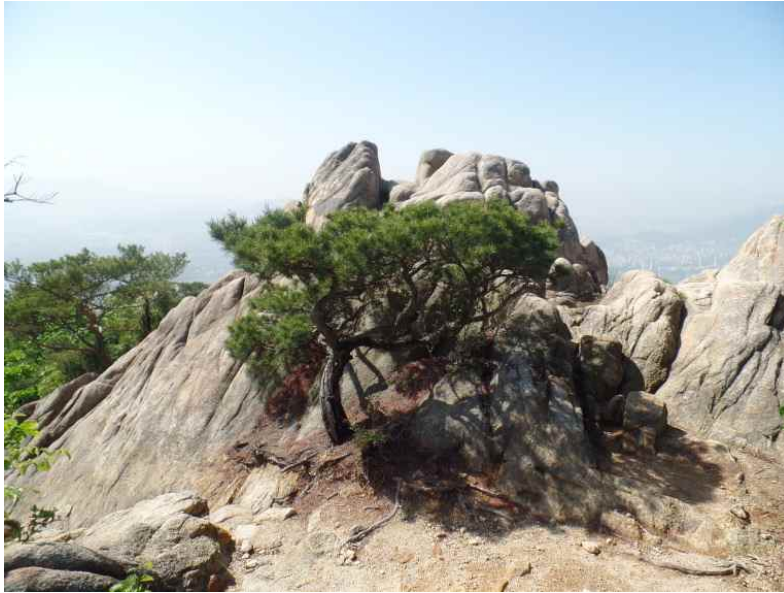
무사는 ‘죽느냐 사느냐’의
진검승부를 위해 수련합니다.
수행자는 욕망과 분노와 사건과
진검승부를 위하여 올인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청정한 삶의 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합니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입니다.
부지런함은 불사의 길입니다.
부지런히 정진 하였을 때
이렇게 외칠 것 입니다.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2016-05-09
진흙속의연꽃

15. 용서



가슴에 양금을 안고 살 수 없다. 이전 EBS 에서 ‘용서’ 라는 이름의 프로가 방영되었다. 요즘은 ‘리얼극장-행복’ 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심야시간대에 방영되는 이 프로를 보면 갈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형제나 자매간의 갈등, 선배와 후배의 갈등, 스승과 제자의 갈등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부부와의 갈등이나 시모와 며느리와의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마음이 쌓아 놓고 있었던 것, 상처 받은 이야기 등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통하여 털어내는 것이다.

오랜만에 알고 지냈던 K 법우님과 통화 하였다. 총무원장직선제와 관련하여 카톡방이 만들어졌는데 법우님을 초대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다. 한때 행자생활을 하기도 했고 요즘에는 포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K 법우님과 장시간 통화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으로 재가활동을 하였는데 뜻이 맞지 않아 탈퇴한 사건을 말한다. 여러 가지 실망한 것에 대하여 글로 표현한 바 있다. 그런데 그 글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실명이나 이니셜을 쓰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글이 곧바로 공개 되었다고 한다. 전해 듣기로는 그 글로 인하여 대단히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아홉 가지 감동적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단 한가지 부정적 이야기로 인하여 도매금으로 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K 법우님은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 주었다.

K 법우님과 통화하면서 꼼꼼히 생각해 보았다. 그 동안 잊고 지냈는데 생각 난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응어리였다.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찝찝한 것에 대하여 그대로 넘어 갈 수 없다. 그 분에게 다음과 같이 메일을 보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원장직선제와 관련하여 000 님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만의 통화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작년 저의 행위가 경솔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글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었다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을 보니 그때 당시 서운했던 감정이 그대로 표현 되어 있더군요. 더구나 사생활부분까지 언급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명이나 이니셜이 들어 가지 않았지만 000 님 말대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라 했습니다.

오랜만에 000 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의 글은 삭제했습니다. 그 동안 잊고 있었던 것인데 지적을 해 주어서 늦게나마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지난 글로 인하여 불편해 하셨다면 이 글을 통하여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흔히 불교바닥이 좁다고 합니다. 바닥이 좁다 보니 어디를 가든 한번쯤 만나게 될 것이라 합니다. 불교를 떠나지 않는 한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관련 글을 쓰고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마음에 쌓여 있었던 것은 털고 가는 것이 나올 듯 합니다.

지나고 보니 잘못된 것이나 후회된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한 구석에 담아 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늘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것이 못삶들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직까지 욕망과 분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 그제서야 알아차리기 식

입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하여 불편해 하시고 속이 상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서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해 보지만 이미 일은 벌어지고 난 다음이다. 순간적 욕망과 분노의 노예가 되어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늦은 것이다. 이전에 알아차렸어야 하나 수행이 되지 않은 못살들은 매번 똑 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한다.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목적은 탐, 진, 치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욕망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 도둑질, 사음 등을 말한다.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 오는 것은 욕망과 관련된 것이다. 욕망과 함께 반드시 따라 다니는 것은 분노이다. 뉴스에서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다. 상대방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격분하여 자신도 모르게 살인을 저질렀다는 식의 얘기를 듣는다.

누구도 욕망과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라한이 아닌 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오랜 세월 수행을 했어도 경계에 부딪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욕망과 분노이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지나쳐서 그것이 어떤 행위로 나타났을 때 결국 업이 된다. 신체적이든 언어적이든 정신적이든 업을 짓고 있는 것이다.

글을 쓰는 것도 업을 짓는 것이다. 글쓰기에 대하여 필업이라 하여 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당시 서운했던 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노의 글쓰기를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 했다. 그 때 당시 글쓰기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풀었는지 모르지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준 것이다. 열 가지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모두 못한 것이 되는 것과 같다.

메일에 답신을 받았다. 이른 아침 메일함을 열어 보니 그 분이 메일을 보내 왔다. 자신은 인터넷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올린 글을 보지 않는다고 했다. 각종 매체에 수 많은 기고를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악성댓글도 받는다고 했다. 솔직한 고백에 대하여 “그 점에서 오늘 주신 글을 받고보니 주신 마음은 고이 받고요, 저에게 사과할 것은 전혀 없으니 마음 편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라 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마음이 후련했다. 답신을 받고 보니 안심 되었다. 이 좁은
바닥에서 다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까?

2016-05-21
진흙속의연꽃

16. 쪽동백나무꽃을 보았더니

한가하고 할일 없는 일요일 오후였다. 이럴 때 산에 가는 것이 최고이다. 그렇다고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집 근처 관악산 둘레길 가는 길이 있다.

바로 근처에 숲으로 진입하는 길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갑자기 늦봄의 날씨가 한여름이나 된 듯 30도가 넘어서자 도시가 열기로 가득하다. 이럴 때 숲으로 들어 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분위기가 반전된다.

관악대로를 건너면 반야선원이 곧바로 나온다. 선원 바로 옆길이 관악산 둘레길로 연결 되는 통로가 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통로와 같다. 그런 숲길에 들어서자마자 별세계가 펼쳐진다. 신록도 점점 짙어져 가는 초록의 향연이다. 그 때 두리번거리며 찾아 보는 것이 있다. 이맘때쯤 피는 때죽나무꽃이다.

때죽나무를 찾아 보았다. 그러나 끝물이다. 5월도 말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꽃은 거의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지에 붙어 있는 것도 있다. 너무 늦게 온 것이다.

이번에는 그 꽃을 찾아 보기로 했다.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꽃이라 한 것이다. 그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생긴모습이 때죽나무꽃과 비슷하지만 잎사귀와 꽃줄기가 다르다. 오염의 흰꽃이 아래로 매달리듯 피는 것은 같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잎사귀에서 차이가 난다. 그꽃은 잎사귀가 크고 동그란 것이 특징이다. 또 꽃줄기가 있어서 마치 목걸이용 꽃다발을 연상케한다. 그런 꽃을 알기에 이곳 저곳 찾아 보았으나 꽃을 발견할 수 없었다.

늘 다니는 숲길이다. 사시사철 산책하듯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특히 봄에는 어느 나무에서 어느 꽃이 피는지 알 수 있다. 그꽃이 있는 곳도 알고 있었다. 오월에 피는 그 꽃이 생각나서 찾아 보았지만 이미 지고 난 후였다. 바닥을 보니 마치 흰꽃이 시체처럼 가득했다. 너무 늦게 온 것이다. 그 꽃이름 쪽동백나무꽃이다.

쪽동백을 2012년 처음 보았다. 마치 하와이완목걸이꽃처럼 희고 아름다워서 “오월이 되면 총림(叢林)에서 피는 꽃(2012-05-13)”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 바 있다.





오월 늦봄 강렬한 햇살이 비치는 날 쪽동백을 보고자 숲에 들어갔다. 마치 연인을 보듯 설렘을 가지고 숲에 들어 갔으나 이미 지고 난 뒤였다. 야속하게 꽃줄기에는 콩알만한 열매가 맺혀 있었다. 꽃은 숲속에서 저 혼자 피었다가 저 혼자 진 것이다.

숲여행을 계속했다. 야생의 꽃을 보기 위해서였다. 정원이나 공원이나 가로의 관상용 꽃은 크고 화려하다. 그러나 숲에 피는 꽃은 작고 흰 것이 특징이다. 때죽나무꽃, 쪽동백나무꽃이 대표적이다. 끝물을 아쉬워하며 걷고 있을 때 보상이라도 해 주듯이 매우 작고 흰꽃이 이제 막 피어나려 하고 있다. 산꽃이 그렇듯이 향기가 진하다.



꽃은 때 되면 피어난다. 공원이나 거리의 꽃은 다니면서 매번 보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에서 피는 꽃은 언제 피었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린다. 봄철 일주일만 늦어도 이미 꽃은 지고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허탈하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듯 하다.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산길 산책을 마치고 동네로 돌아왔다. 늦은 오월이어서일까 아파트담장에는 장미가 한창이다. 이른바 장미의 계절이 시작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월이 장미의 계절이라 하지만 열섬으로 인하여 도심의 장미는 일찍 개화 한다. 빨강과 흰 장미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자극한다.



장미의 계절에 숨어 있는 듯 피는 꽃이 있다. 너무 작아 꽃이 피는지조차 모를 꽃이다. 이맘 때쯤 피는 감꽃이다. 커다란 잎에 숨어 있는 감꽃을 보기는 쉽지 않다. 일부로 가까이 가서 쳐다 보기 전에는 피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러나 매년 감꽃이 필 때 그 나무에 가서 보기 때문에 확인 할 수 있었다. 작고 노랑 감꽃이 수줍은 듯이 피어 있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감꽃을 볼 때 마다 바이블의 한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넓은 잎사귀 속에 꽃이 피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작은 꽃이지만 열매는 매우 크다.

크고 화려한 꽃 대부분은 열매가 보잘 것 없다. 겉모습만 번지르하지 실속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작고 가냘픈 보이는 노랑감꽃은 큰 열매를 맺는다. 마치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감꽃은 어머니 같은 꽃이다.

꽃을 찾아 숲에 들어 갔다. 그러나 설렘에 보고 싶은 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꽃은 숲에서 피고졌다. 붉고 화려한 장미가 아름답다 하지만 늘 보는 꽃이다. 별다른 감흥이 없다. 그러나 숲에서 피는 작고 흰꽃은 순결하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주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할 바를 다하는 것이다. 감꽃 역시 그렇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 큰 결실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은 비록 작고 보잘것 없지만 노력하면 성공하는 것과 같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도를 닦는 것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이다. 단지 도닦는 것으로 그친다면 붉고 화려한 꽃에 지나지 않는다. 도를 닦아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수행처에서 하는 말이 도와 과이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듯이, 도(magga)를 이루어 열매(phala)를 맺는 것이다.

2016-05-23
진흙속의연꽃

17. 하늘에는 어머니의 우비가, 세상에는 부처님의 법비가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가 반갑게 느껴집니다.
요 몇 일 무더웠습니다.
아직 봄임에도 여름으로 점프한 듯 했습니다.

옷차림이 아직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온도는 평소보다 10도 높고,
습도 역시 높아 불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가 내리니 고마운 비입니다.

모내기철 입니다.
농사를 앞두고 대지가 촉촉히 젖었습니다.
생명의 비, 어머니같은 비입니다.

“아들이 인간의 의지처이고
최상의 벗은 아내이고,
땅에 의존하는 못살들은
비[雨]라는 존재들이 그들을 키우네.”

아들을 키우듯, 비가 게으르거나
게으르지 않은 자 모두를 키우니,
비의 존재가 참으로
이 지상에 사는 생명들을 키우네.” (S1:80)

학의천에도 비가 내립니다.
가로와 은행, 벚꽃나무도 촉촉합니다.
잡초에도 듬뿍내립니다.
차별없이 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범비라 합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 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머니의 우비가 내리고,
세상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비가 내립니다.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그들의 종류와 성질을 따라서
자라고 크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나니,
비록 한 땅에서 나는 것이며
한 비로 적시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풀과 나무가
저마다 차별이 있느니라.”
(법화경, 약초유품)

한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귀하고 천함이 있습니다.
한구름에서 내린 비도 초목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차별없이 자식을 대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의 범비는 차별없이 적습니다.

2016-05-24
진흙속의연꽃

18.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



요즘 끔찍한 범죄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잊을 만 하면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엽기적 살인사건은 사실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현시대를 민주주의 시대라 합니다. 일인일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이자 평등의 시대라 합니다. 투표권만 평등하다고 하여 평등의 시대라 볼 수 있을까요? 경제적 평등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부익부빈익빈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80 대 20 사회가 아니라 95 대 5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상위 5%가 부를 독점할 뿐만 아니라 사회 대부분의 권력을 독차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범죄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도 크게 작용 합니다. 돈벌기선수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돈버는 재주가 없는 사람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박탈 당했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는 도덕불감증입니다. 사이코패스적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동물적 본능만 작용 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익부빈익빈의 자본주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 양심과 수치심이 결여된 사회라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이 될 것 입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은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과 같다고 했습니다.

2016-05-27
진흙속의연꽃

19.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종종 듣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한 버전은 여럿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지금하자.’ 는 등의 말입니다. ‘부지런하자.’ 또는 ‘게으르지 말자.’ 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 있는 게 가장 편합니다. 굳이 일을 만들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이나 의무적으로 할 뿐 일부러 나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귀찮아 합니다. 지금 이대호가 좋은 것 입니다. 이럴 때 그의 자세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편리함과 안락을 추구 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습니다. 결국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리모콘터치만 하는 ‘복지안동(伏地眼動)’ 형 인간이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차일피일 미룹니다. 무료와 권태, 나태와 태만, 하품과 졸림 등 소극적으로 일관 하는 삶 입니다. 오로지 편리함과 안락함 만을 추구합니다. 사실상 죽은목숨 입니다.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이 남긴 유훈입니다. 모든 것은 부서지고 마는 것이니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일하지 않음이 불사의 길이고 방일하는 것은 죽음의 일이니 방일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으며 방일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Dhp21) 라고 했습니다.

방일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편리함과 안락만을 추구하며 도무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살아 있지만 시체와 같습니다.

게으름과 전쟁입니다. 무료와 권태, 나태와 태만, 하품과 졸림, 후회와 회환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습니다. 게으름과의 전쟁에서 지면 죽은 목숨입니다. 게으른 자는 이미 죽은 자이고 부지런한 자는 죽지 않는 자입니다.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2016-05-30
진흙속의연꽃

20. 온통 초록의 세상이 되었을 때

또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눈을 뜨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 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은 일상 입니다. 이런 일상을 사랑 합니다. 지금 이대로그가 좋은 것이죠.

세상은 변합니다. 조금도 가만 있지 않습니다. 거리의 차량들은 끊임없이 질주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갑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녹음이 갈수록 우거집니다. 신록의 봄이 지나 이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햇볕이 이제 따갑게 느껴집니다. 우거진 신록을 보면 동색입니다. 오로지 초록 입니다. 키 높은 나무의 흰꽃도 저서 오로지 초록이라 군대를 연상케 합니다.

장미의 계절 입니다. 거리의 담장에는 붉고 흰 장미로 가득 합니다. 장미원에 가면 온통 장미의 세상 입니다. 장미의 계절에 매혹적 꽃을 보았습니다. 철쭉 같은데 컬러가 다릅니다. 바깥쪽은 화사한 붉은 색, 안쪽은 흰색으로 투톤컬러 입니다. 보기에 매우 품격 있게 생겼습니다. 이 꽃 이름은 무엇일까?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학교친구가 ‘사스끼’ 라 합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원예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는 식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장미의 계절에 사스끼는 돋보였습니다. ‘왜철쭉’ 또는 ‘귀공자꽃’ 이라 불리는 꽃은 군계일화 입니다.



신록은 갈수록 무성해 집니다. 세상이 온통 초록이 되었을 때 공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대근처에 갔을 때입니다. 군대에서 초록은 녹색당의 이미지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같은 초록이라도 군대의 초록은 다릅니다.

획일화 되었을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 입니다. 오로지 사람만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념과 이권으로 뿔뿔 뭉쳐진 집단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른 아침 학의천을 걷습니다. 비록 짧은 거리의 생태하천을 걷지만 다양한 삶을 봅니다. 들꽃은 누가 보건 말건 피었다 집니다. 팔뚝만한 잉어떼는 어디서 왔을까요? 청둥오리와 백로는 또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작은 새들이 퍼득이며 날아 갑니다. 어디서 짝을 짓고 새끼를 쳤을까요?

꽃으로 장엄된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미처럼 한가지 꽃이 아닙니다. 수 만가지 꽃으로 이루어진 세상 입니다. 이름 모를 들꽃서부터 귀공자꽃에 이르기 까지 갖가지 꽃으로 장엄된 세상 입니다. 공통적으로 모두 대지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화엄세상 입니다.



아침 햇살 듬뿍 받으며 학의천을 걷습니다. 바삐 걸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꽃을 보면 잠시 멈추고 사진을 찍습니다. 멈추어서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2016-06-03
진흙속의연꽃

21. 동트는 새벽에

새벽 4시 30분. 어둑하긴 하지만 동쪽하늘에 여명의 기미가 보인다. 4시 40분이 되자 불과 10분만에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전 10분에 비하여 10배는 밝아 진듯하다. 하늘을 보니 푸른 기운이 보인다. 저 멀리 아파트 실루엣이 드러난다. 아직 바로 앞 아파트 단지의 숲은 거뭇하다.

동쪽하늘을 계속 주시한다. 1분의 변화는 느낄 수 없다. 그러나 1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10분 되었을 때 변화는 감지된다. 인생의 일년 단위의 변화는 느끼지 못한다. 10년 전의 사진을 보면 세월을 실감한다. 10분단위의 동녘의 변화는 인생의 10년 단위의 변화를 보는 것 같다.

오전 4시 50분. 관찰한지 20분이 지났다. 숲은 여전히 어둑하지만 하늘은 흰하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너머 먼 산의 실루엣이 드러난다.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은 더 밝아 있다. 5분전의 하늘이 아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5시가 되었다. 이전 10분과 비교 되지 않을 정도로 밝아졌다. 드디어 거뭇하던 숲의 초록이 드러났다. 새의 지저귀는 점점 요란해지고 차량의 소음도 증가한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빛을 잃어 간다. 불과 10분 만에 세상이 확 바뀌었다.



새벽을 사랑한다. 어둠 속에서 동트는 새벽을 맞을 때 세상과 함께 하는 것 같다. 서서히 밝아 오는 여명과 함께 세상의 지배자, 세상의 창조자가 되는 듯하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전개 될지 알 수 없지만 세상의 시작과 함께 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태양이 떠 오를 때
그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바로 새벽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 생겨날 때
그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S45.54)

태양이 떠 오르기 전에 ‘새벽’이라는 전조현상이 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원인이 있고 조건이 형성 되듯이 태양이 떠오르기 전

먼저 동이 뜬다. 새벽이 되어 세상이 흰하게 밝아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태양이 떠오른다.

게으른자들은 태양이 떠 오르고 난 뒤 일어난다. 부지런한자들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 새벽을 맞는다. 태양의 전조가 새벽이듯이 성공의 전조는 ‘불방일(appamāda)’이다. 얼리버드(Early bird), 새벽형인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팔정도의 길은 깨달음의 길이다. 팔정도는 이미 깨달음이다. 팔정도의 길에 전조가 있다. 불방일이다. 태양의 전조가 새벽이듯이, 깨달음의 전조는 불방일이다.

“방일하지 않음이 불사의 길이고
방일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니
방일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으며
방일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Dhp21)

2016-06-06
진흙속의연꽃

22. 나는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부활 하듯이 눈을 뜹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전개 될까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 합니다.

아침이 되면 고요해 집니다. 흙탕물이 정화 되듯이 마음의 찌꺼기들이 가라 앉아 투명해 집니다. 갑자기 어제의 행위가 부끄러워 집니다.

사람들은 욕망으로, 분노로, 어리석음으로 살아 갑니다. 풀리는 대로, 땡기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 갑니다. 미래 다시태어남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 합니다. 잠도 잘 잤습니다.

[알라바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잘 주무셨습니까?” (A3.35)

[세존]

“왕자여, 나는 잘 잤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A3.35)



부처님은 잠을 잘 잔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가 달라이라마 존자에게 “스님은 깨달았습니까?” 라며 당돌하게 물어 보았습니다. 이에 존자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저는 잠을 잘 자는 사람 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잠을 잘 자는 사람 중의 하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세존]

“왕자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탐욕으로 인한 고뇌가 생겨나면,
그 탐욕으로 인한 고뇌로 불타면서
괴롭게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A3.35)

마음속에 욕망과 분노로 가득하다면 잠을 잘못 이를 겁니다. 탐, 진, 치 등 마음의 오염원이 소멸된 성자에게 불면증은 없습니다. 욕망으로,

분노로, 어리석음으로, 끌리는 대로, 뺏기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은 계속 될 것 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오염되지 않고
청량하고 집착이 없고
완전한 적멸을 성취한
거룩한 님은 언제나 잠 잘자네.
모든 집착을 부수고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고
마음의 적멸을 성취한 님은
고요히 잠 잘자네.” (A3.35)

2016-06-07
진흙속의연꽃

23. 짧은 쾌락 긴 고통

어떻게 해야 불자가 될까요? 요즘 불자 되는 길은 수계를 통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신도증을 만들면 확실한 불자가 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 불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제가자 마하나마가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 불자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마하나마여, 부처님에게 귀의 하고 가르침에 귀의 하고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재가신자가 됩니다.(S55.37)”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불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불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이 오계준수입니다. 그러나 오계준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는 불교가 아니더라도 어느 종교이든지 권장하는 도덕적인 규범입니다. 핵심은 ‘삼귀의’ 입니다.

삼보를 의지처, 귀의처, 피난처로 하면 오계는 준수 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계를 어기는 삶을 살아 갑니다. 오계를 모두 어기는 것을 이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에서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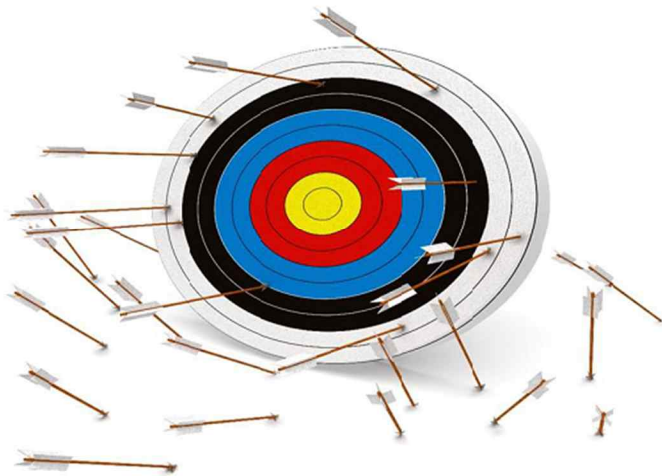
범행자들은 가장먼저 술을 마셨습니다. 불음주계를 어긴 것 입니다. 다음으로 관사에 침입 했습니다. 불투도죄 입니다. 여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요즘은 폭력도 살생의 범주에 넣기 때문에 불살생계와 불사음계를 어긴 것 입니다. 경찰에 불려가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불망어죄 입니다. 오계를 모두 어긴 것 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조건이 오계준수라 합니다. 오계를 어겼을 때 사람 몸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계를 확장하면 ‘십선법’ 이 됩니다. 천수경 ‘십악참회’ 에 해당 됩니다.

십악참회에서 마지막 열 번째가 ‘치암중죄금일참회’ 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불명확 합니다. 다만 어리석음을 참회 한다는 내용 입니다. 그러나 초기경전에서는 명확 합니다.

[세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보시에는 공덕이 없다. 제사의 공덕도 없다. 공양의 공덕도 없다.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마음에서 홀연히 생겨나는 존재도 없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며 스스로 깨달아가르치는 올바로 도달된 수행자 성직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전도된 견해를 갖습니다.” (M41)



치암, 즉 어리석음은 사건입니다. 빗나간 견해를 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에 대한 과보는 없다’거나 ‘내생은 없다’ 등 업에 대한 과보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으면 끝이다’ 라는 단멸론적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단멸론적 견해를 가지면 도덕적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한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라는 견해가 생겨 납니다. 도덕적으로 금하는 그 어떤 것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섬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모두 오계를 어긴 전형적 사례 입니다. ‘짧은 쾌락 긴 고통’ 의 시작입니다.

“죄악을 얻어 나쁜 곳에 떨어진다.
두려워하는 남자가

겉에 질린 여자에게 얻는 쾌락은 적다.
왕 또한 무거운 벌을 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남의 아내를 범하지 말지니.”
(Dhp310)

2016-06-10
진흙속의연꽃

24. 마음은 제멋대로이다

요즘 사람들은 두 개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세계, 또 하나는 가상세계 입니다. 가상세계는 사이버세상 입니다. 인터넷공간 입니다. 매일 두 세계를 들락거리며 살아갑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판이 서툴렀으나 이제 익숙합니다. 장점도 많습니다. 자주 쓰는 단어는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자주 사용하다 보니 이제 매우 익숙합니다. 아주 편한 자세로 푹푹치다 보면 글이 완성 됩니다.

떠오른 생각을 붙잡아 둡니다. 다음 단계는 공유 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밴드와 카톡에 올립니다. 먼저 밴드에 올립니다.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물론 삭제도 가능 합니다. 다음으로 카톡에 올립니다.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수정도 삭제도 안됩니다. 한번 올리면 끝 입니다. 마치 말을 한다음 주어 답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타 하나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건 말건 올립니다. 이제까지 나만의 공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공간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횡설수설 하는 자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해야 합니다. 들어 온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조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참으로 미묘 합니다. 한번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심어지면 여간해서 고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마음이 진실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내려앉는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훌륭하나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 온다.”

(Dhp35)



마음은 제멋대로입니다. 미쳐 날뛰는 것 같습니다. 범구경계송을 보면 마음은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은 제어되기 어렵고, 쉽게 일어나고 쉽게 사라지는 것이 마음이라 했습니다. 과연 이런 마음이 내마음이라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내것이 아님은 분명 합니다. 내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마음이 내것이라면 통제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 입니다.

- 1) 마음은 길들이기 어렵고,
- 2) 마음은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 3) 마음은 제멋대로 이고,
- 4) 마음은 원래 선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네 가지 특징을 보면 모두 부정적 입니다. 특히 네 번째 “선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 결정적 입니다. ‘성악설’ 을 떠 올리게 합니다.

마음은 다스려져야 합니다.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가능 합니다. 그래서 늘 ‘알아차리라(sati)’ 고 합니다. 계송에서도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 온다.” 라 했습니다. 범부는 마음에 휘둘러 살지만, 반면 성자는 마음을 다스리며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간사 합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싫어 합니다. ‘호불호’ 가 명확 합니다. 한번 좋으면 ‘죽어라 좋아’ 하고 한번 싫으면 ‘죽어도 싫어’ 하는 것 입니다. 과연 이 마음이 내 마음 일까요?

마음에 휘둘러 살면 좋아함과 싫어함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한번 아니면 누가 뭐래도 아닌 것 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마음은 제멋대로이고 원래 선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은 다스려야할 대상 입니다.

2016-06-11
진흙속의연꽃

25. 두 갈래 길에서

저 능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도 가보지 않은 산길을 갑니다. 가도가도 능선은 멀리 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땀은 비오듯 합니다. 오히려 후련 합니다. 욕망의 찌꺼기, 분노의 찌꺼기, 방종의 찌꺼기, 자만의 찌꺼기가 씻겨나가는 듯 합니다. 더 씻겨 나가도록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올라 갑니다.

‘여보시오, 이 길을 따라 잠깐만 가면 두 길이 나타난다. 그러면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라.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면 우거진 숲이 보인다.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라.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면 늪지대가 보인다.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라.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면 험준한 절벽이 보인다.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라. 그 길을 따라 잠깐만 가면 풍요로운 평원이 보인다’ (S22:84)

두 갈래 길에서 바른 길로 가라 했습니다. 누구나 다니는 길이 아닌 ‘길 없는 길’ 입니다. 도중에 밀림도 있고 늪지대도 있고 절벽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푸른 초원이 펼쳐질 것이라 했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왼쪽길은 ‘팔사도의 길’ 이고 오른쪽길은 ‘팔정도의 길’ 입니다. 커다란 숲은 무명이고, 늪지대는 감각적 쾌락이고, 절벽은 분노와 절망 입니다. 마침내 풍요로운 초원에 달했을 때 열반 입니다.

정상에 도달 했습니다. 저 멀리 첩첩산중 입니다. 이름 모를 새들이 여기저기서 합창 합니다. 한줄기 바람이 불 때 마다 솔바람 소리가 납니다. 비가 오려나 봅니다. 여기는 춘천 북단 용화산 입니다.



2016-06-11
진흙속의연꽃

26. 고요함과 부드러움으로

세상은 긴장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물론 혼자 산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산에서 나홀로 사는 자연인이나 토굴에 사는 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공동체, 직장공동체 등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곳에 늘 긴장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 사는 곳의 갈등은 대부분 가족간입니다. 직장에서 또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갈등도 있지만 육칠십프로는 가정내에서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부모자식간의 갈등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 대부분입니다. 때로 피터지게 싸우기도 합니다.

법륜스님은 ‘즉문즉설’로 유명 합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봤습니다. 안양투어때는 직접보기도 했습니다. 법륜스님이 말하는 갈등해법은 무엇일까요?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 했습니다. 딱히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역지사지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 해 가면 된다는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법륜스님은 이것을 불교적 해법이라 했습니다.

갈등에 반드시 부정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면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대응이 아니라 불교적 해법으로 대응 하는 것 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것 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으로 분노와 사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묘한 진리를 어둠에 뒤덮이고 탐욕에 불붙은 자들은 보지 못하네.” (S6.1) 라 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Paṭisotagāmiṃ)’ 사는 것 입니다. 역류도(逆流道)를 말합니다.

“수행승들이여, 흐름을 거슬러 올라 가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악한 업을 저지르지 않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완전한 청정한 삶을 실천한다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흐름을 거슬러 올라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A4.5)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사는 것은 결국 ‘청정한 삶(brahmacariya)’의 실현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따릅니다. 마치 연어가 거센물살을 헤치고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고통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라 했을 겁니다.

사람 사는 곳에 긴장과 갈등은 늘 있는 일입니다. 못 풀면 모두 불행해지지만, 잘 풀면 발전과 번영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 해법이 있습니다. 인내 하는 것 입니다. 특히 강자가 인내 하는 것 입니다.

힘 없는 자는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인내하기는 어렵습니다. 힘 있는 자는 강력한 처벌로 힘 없는 자를 억누르려 합니다. 긴장과 갈등의 시작 입니다. 그러나 불교적 해법은 다릅니다.

힘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의 분노에 인내 합니다. 마치 여인 ‘찢짜’가 거짓임신으로 부처님을 모욕 했을 때 ‘고요함과 부드러움으로’ 접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 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힘은
힘없는 자의 힘이라네.
진리를 수호하는 힘 있는 자에게
대적할 사람은 없다네.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하면,
그 때문에 그는 더욱 악해지리.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네.

다른 사람이 화내는 것을 보고
새김을 확립하여 고요히 하면,
자신을 위하고 또 남을 위하고
둘 다의 이익을 위한 것이네.” (S11.4)

2016-06-18
진흙속의연꽃

27. 내 나이가 십년만 젊다면

“내 나이가 십년만 젊다면” 지금 육십대라면 오십대를 보면서 십년만 젊었으면 합니다. 오십대는 사십대를, 칠십대는 육십대를 부러워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십년만 젊다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아쉬워 한다면 잘못 살았음에 틀림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모두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비육십(人生非六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십을 살다 보니 이제까지 육십평생이 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육십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입니다. 사십오세 때 그랬습니다.

십일년전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아니 퇴출되었다는 것이 맞을 표현일 것 입니다. 내것이 아니기에 아무리 잘나가도, 고위직에 있더라도 월급쟁이들은 결국 퇴출로서 마무리 됩니다.

본의 아니게 사오정이 되었을 때 지난 20년간의 직장생활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밤낮없이, 주말없이, 휴가없이 매진 하였던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비사십오세’라 볼 수 있습니다.

일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노는 일에 염불한다고 일이 없으면 글을 씁니다. 아니 일이 있어도 일부러 시간내어서 의무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벌써 십년째 입니다. 후회 없습니다.

글쓰기를 하면서 제인생을 산듯 합니다. 이전에는 월급받아 먹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고용인으로 산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것은 ‘노예근성’ 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하면서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수입은 적고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삽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주인공이 된 듯 합니다. 글쓰기하였을 때 살아 있음을 확인 합니다.

지난 십년동안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십년만 더 젊었으면’ 라는 말은 저에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생비사십오세’ 이었습니다.



人間五十年、
下天のうちをくらぶれば、
夢幻の如くなり。
一度生を得て、
滅ぼせぬ者のあるべき

인생오십년
돌고 도는 인간 세상에 비하면
꿈처럼 덧없거늘
한번 태어나서
죽지 않는 자
어디 있으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한번뿐,

신명나게 살았구나.

(人間五十年, 오다 노부나가)

2016-06-19

진흙속의연꽃

28. 그대는 멈추어라

“그대는 멈추어라.” 앙굴리말라 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손가락 반지를 화관처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는 흉포한 연쇄 살인자에게 ‘멈추라’ 라고 한 것 입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 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초월적 힘을 행사한 것 입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따라 잡을 수 없게 되자 부처님을 향하여 ‘멈추라’ 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계송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언제나 일체의 살아있는
존재에 폭력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있는 생명에 자제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M86)

부처님은 신통의 힘으로 앙굴리말라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자 앙굴리말라의 욕망과 분노의 삶도 멈추었습니다. 마침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되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묶이어 유전하고 윤회하는 삶이 멈추게 된 것 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과보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앙굴리말라는 탁발하러 갔다가 돌덩이와 몽둥이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죽어가는 앙굴리말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승이여,
그대는 인내하라.
수행승이여,

그대는 인내하라.
그대가 업의 과보로 수 년,
아니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다.” (M86)

살인업에 대한 과보가 익은 것 입니다. 이에 부처님은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한량 없는 세월동안 지옥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번뇌 다한 아라한에게 있어 다시태어남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은 업에 대한 과보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과거에 지은 업은 소멸되었지만 조건발생에 따른 과보를 고스란히 받은 것 입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만난 인연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전의 연쇄살인자가 아니라 성자로 거듭난 것 입니다. 앙굴리말라장로가 남긴 계승은 언제 읽어도 감동적 입니다.

“예전에는 방일하여도
지금은 방일하지 않은 자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저질러진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덮으니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참으로 짧은 수행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나의 적들은 법문을 들어라.
나의 적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나의 적들은 가르침으로 이끄는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어라.

나의 적들은 인욕을 설하고
원한이 없는 것을 찬양하는 자에게
올바른 때에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라 수행하라.

관개하는 사람은 물꼬를 트고
활 만드는 자는 화살촉을 바로잡고
목수는 나무를 바로잡고
현자는 자신을 다스린다.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나
갈구리나 채찍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몽둥이 없이 칼 없이 다스려졌네.

예전에 살해하는 자였던 나는
이제는 살해하지 않는 자이네.
오늘 나에게 진실한 이름이 있으니
아무도 ‘해치지 않는 자’ 였네.
예전에 나는 흉적으로서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졌다.
커다란 폭류에 휩쓸렸으나
부처님께 안식처를 얻었네.

예전에 나는 손에 피를 묻히는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존재의 그물을 끊고
내가 귀의한 것을 보라.

이와 같이 나쁜 곳으로 이끄는
많은 악업을 짓고
아직 그 업보에 맞닥뜨리지만
부채 없이 음식을 즐기네.

어리석어 무지한 사람들은
오로지 방일에 탐닉한다.
슬기로운 자는 방일하지 않기를
마치 최상의 보물을 수호하듯 하네.

방일에 빠지지 말라
감각적인 쾌락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
방일하지 않고 명상하는 자
크고 한없는 즐거움을 얻으리라.

밝혀진 가르침들 가운데
그 최상의 것에 나는 도달했다
내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는 환영하여 거절하지 않네.

나는 세 가지 밝은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했다.
내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는 환영하여 거절하지 않네.” (M86)

2016-06-21
진흙속의연꽃

29. 낮의 절정 하지(夏至)에



아침 다섯 시만 되도 대낮같이 밝습니다. 어제와 오늘 낮의 길이가 절정입니다. ‘하지(夏至)’입니다. 북극권에서는 ‘하지제(夏至祭)’라 하여 축제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밤이 절정일 때 동지라 합니다. 해마다 동지 때가 되면 절에서는 주요한 불교명절 중의 하나로 기념 합니다. 민간에서도 동지를 특별한 날로 보아 팔죽을 쑤어 먹습니다.

하지 보다 동지입니다. 음의 기운이 절정에 달했을 때, 어둠이 깊어 갈 때 동지를 기다립니다. 낙엽은 지고 세상이 앙상하게 보일 때 동지가

있습니다. 비록 혹독한 추위가 더 남아 있을지라도 동지가 되면 새해가 된 듯 합니다.

지금 양의 기운이 절정입니다. 낮의 길이가 절정입니다. 산꼭대기에 오르면 내려 갈 일만 남았듯이 서서히 양의 기운이 빠질 것 입니다. 그리고 혹독한 무더위가 닥칠 것 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버티기 힘든 계절이 옵니다. 그래서 하지를 기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 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 합니다. 변하다 보면 양이 천정에 이르고 음이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자연무상’ 입니다.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인생도 변합니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노년으로 됩니다. 머리가 반백이 되었을 때 세월이 흘렀음을 알게 됩니다. ‘인생무상’ 입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인생을 보면서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지 않는습니다. 견고한 ‘자아(自我)’ 에 바탕을 두기 때문 입니다. 몸이나 느낌, 지각, 마음 등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자아를 거머 쥐고 있는 한 자연무상과 인생무상은 단지 변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일 뿐 입니다.

설산동자가 마지막 구절을 듣고자 절벽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제행무상시생멸법(諸行無常是生滅法)’, 즉 “모든 조건지어진 것은 무상하니, 생겨나고 소멸하는 법이네.” 라는 문구를 듣고 난 다음, 이어지는 문구가 궁금 했던 것 입니다.

동자는 진리를 위해 투신 했습니다. 그 정성이 가륵해서 하늘사람이 떠 받쳐 주었습니다. 동자가 알고자 한 것은 ‘생멸멸이적멸위락(生滅滅已寂滅爲樂)’ 입니다. “생겨나고 또한 소멸하는 것, 그것을 그치는 것이 행복이네.” 라는 뜻 입니다.

한문개송에서 ‘생멸(生滅)’ 이 두 번 나옵니다. 앞 생멸은 ‘자연무상’ 또는 ‘인생무상’ 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자아에 기반한 무상 입니다. 무상함을 알지만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문구에 두 번째 생멸이 나옵니다. ‘오온무상’ 입니다.

같은 생멸이라도 빠알리 계송을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빠알리 계송은 “Aniccā sabbe saṅkhārā /uppādavayadhammino, /Uppajjitvā nirujjhanti /tesaṃ vūpasamo sukhoti.” 로 되어 있습니다. 앞생멸에 해당되는 단어가 ‘uppāda-vaya’ 입니다. 변화해 가는 것에 대한 생멸을 말합니다. 뒷생멸은 ‘Uppajjitvā nirujjhanti’ 로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생멸로서 ‘오온생멸’ 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 갑니다. 매일 똑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만 지나고 보면 엄청나게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에서 인생의 변화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견고한 자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제행무상은 알지만 ‘제법무아(諸法無我)’ 는 모릅니다. 설산동자가 투신한 이유일 것 입니다.

2016-06-22

진흙속의연꽃

30.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기 쉽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기 쉽다.”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말일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의지 했다가 실망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믿고 돈을 맡겼는데 ‘폐먹고 달아났다’ 등의 이야기입니다.

법정스님은 스님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스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여겨 집니다. 본래 자유롭게 시는 출가자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나 버린다면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겠지요.

스님을 부처님처럼 믿고 따랐는데 어느 날 그 스님이 환속하였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한역경전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가 믿고 공경하는 사람이 계를 버리고 속세로 돌아가면, 그를 공경하고 믿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 사람은 나의 스승으로서 나는 스승을 존중하고 공경하는데, 그는 계를 버리고 속세로 돌아갔으니, 나는 이제 그 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하여 그가 절에 들어가지 않으면 스님들을 공경하지 않게 되고, 스님들을 공경하지 않게 되면 법을 듣지 못하게 되며, 법을 듣지 못하면 착한 법에서 물러나거나 그것을 잃게 되어 바른 법 가운데 오래 머물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사람을 믿고 공경함으로써 생기는 네 번째 허물이라고 하느니라.”

(과환경(過患經), 잡아함경 제 30 권 제 837 경)

불법이 쇠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스님들이 계행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받들던 스님의 계행이 엉망인 것을 알았을 때, 더구나 어느 날 갑자기 환속해 버렸다면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실망은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도들이 불교를 떠나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불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누구에게 의지 해야 할까요? 당연히 삼보입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입니다. 스님들이 아니라 ‘승가’입니다. 그것도 자자와 포살이 있는 승가입니다. 스님도 역시 승가에 의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가르침(dhamma)’입니다.

부처님은 ‘자귀의’와 ‘법귀의’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삼보외에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요즘은 부처님 원음이라 불리는 니까야 일 것 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지는 가르침에 견주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침에 바탕을 두어 ‘여법하게(Dhammika)’ 말하면 믿을 만 합니다. 그러나 가르침 없이 개인적 견해만을 말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2016-06-24
진흙속의연꽃

31. 빛으로 소통되는 시대

전광석화의 시대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동작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빛으로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전지구에서 눈깜짝할 사이에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글로벌시대이며 동시에 정보통신시대입니다.

손님이 찾아 왔습니다. 작년 밴드와 카톡에서 소통한 인연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 지나는 길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좀처럼 있을 수 없는 희유한 일이라 기꺼이 동의 했습니다.

L님과 만나서 점심을 함께 하고 차를 나누었습니다. 제주의 장선우감독님 이야기도 전해 주었습니다. 영화감독입니다. 한번도 본적이 없지만 블로그로 소통한 바 있습니다.

감독님은 ‘경마장가는길’ ‘나에게 너를 보낸다’ ‘우묵배미의 사랑’ ‘거짓말’ 등의 영화를 통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불자로서 불교영화 ‘화엄경’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블록버스터급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 흥행실패 하면서 귀양가듯 살게 된 곳이 제주라 합니다.

감독님은 제주에서 카페식당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불교공부모임이 있어서 초기불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의 블로그가 많은 도움 됐다 합니다. 영화에 대한 꿈을 버릴 수 없었던지 수년간 시나리오 ‘따타가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것이라 합니다.

L님은 제주에 처가가 있어서 장감독님을 찾게 되었다 합니다. 밴드에서 제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 L님에 따르면 감독님은 최근 미얀마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머물며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파옥에서 저의 블로그를 보는 수행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연의 일치 일지 모르지만 미얀마에서 수행했다는 분이 주신 글을 보면 감독님 이 말한 것과 일치 합니다. 일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머무는 미얀마 파옥 명상센터에서(몰라마인 타운쉽) 에서 연꽃님의 블로그를 읽습니다. 작년 1월 부터이니 일년 육개월 되었고, 글 내용은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얀마 파옥은 재작년에 일년간 선정공부 했고 작년은 조계종 말사에서 예불 하고 지내다가 사미계 받았지만 초기 불교에 올인되어서 환계하고 미얀마에 올해 삼월부터 와서 지냅니다

저는 고등학교 불교학생회 출신이고 00대 불교학과를 0000년에 졸업했습니다. 전재성박사님의 쌍웃따 합본을 지금 거의 읽었습니다 작년엔 맛지마 합본 읽었구요.

저는 전재성님과 연꽃님의 존재가치는 세계사적 이라고 간주합니다. 특히 연꽃님의 글은 모두 출판하고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국제적으로 도서관들에 기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에 종교 파트도 있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츠님)



Panoramic view of Pa-Auk Tawya

사실 츠님은 비밀댓글을 보내 왔습니다. 공개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번은 0000 처리 했습니다. 비난 글에 대한 반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을 읽어 보면 장감독님이 수행한 기간과 겹쳐 집니다.

이런 글을 받게 되었을 때 무척 놀랍니다. 일개 보통불자의 글이 지구 저편 오지의 수행처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번 올린 글은 시공간을 초월 합니다. 인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접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리 글을 잘 씁니까?” 라고. 또 “어떻게 그런 심오한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경전과 주석에 있는 내용을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수행의 경지가 높은 분도 많고 학식이 높은 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공학도 출신의 평범한 보통불자의 글이 회자 되고 있다니 놀라운 일 입니다. 십일 짜리 집중수행 한번 해 본 적 없는 보통불자의 글에 감명 받았다니 송구스럽고 때로 부끄럽고 창피한 느낌도 갖습니다.

어떤 이는 인도 한번 가보지 않은 자가 ‘어디 건방지게’ 함부로 글을 쓰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강호의 숨은 고수도 가만 있는데 재가자 주제에 주제넘게 글을 쓴다는 것 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도 내일도 쓸 뿐 입니다.

사실 내 세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필명으로만 소통 합니다. 미디어붓다 칼럼도 필명 ‘진흙속의연꽃’ 을 사용 합니다. 그런데 글만 보고서 일종의 신비감이나 환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만나보면 지극히 평범한 불자 입니다.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깨 주기 위해서 ‘이외수’ 같다고 말 합니다. 이외수님에게 실례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만 환상을 깨 주기 위해서 입니다.

지구 저편에서 글이 공유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되는 시대입니다. 확실히 빛으로 소통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6-06-24
진흙속의연꽃

32. 황홀한 저녁노을과 찬란한 슬픔

저녁노을이 아름답습니다. 해가 막 넘어 갔지만 서북쪽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장엄한 모습을 카메라 담기 위해 사무실 빌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불과 10 여분 만에 노을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것일까요?



박완서의 소설 중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있습니다. 작가의 유년 시절 이야기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자전적 성장소설입니다.

작가가 여덟 살 무렵 어느 날 해질 녘 하늘이 별경게 장엄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 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홀한 광경을 보고서 그만 평평 울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린 소녀답지 않게 왜 울었을까요? 혹시 금방 스러질 것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별것게 달구어진 노을은 불과 몇 분 후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나이 어린 소녀가 노을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혹시 이후 일어날 사건을 예견한 것은 아닐까요? 소설을 보면 일제시대부터 해방 후 혼란, 그리고 한국전쟁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저녁노을을 보고 울었다는 것은 이후 전개된 사건에 대한 운명적 파탄을 암시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낮에는 항상 밝음만 있습니다. 언제 지나 밝음이 지속 될 듯 합니다. 그런데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나서도 한동안 흰합니다. 그리고 황홀한 노을이 시작 됩니다. 그러나 30 분을 못 버팁니다. 이후 어둠으로 급격하게 바뀝니다. 저녁노을이 황홀하기는 하지만 곧 스러지고 말 것이기에 찬란한 슬픔 입니다. 인생의 황혼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든 노인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시절이 꿈만 같다고 합니다. 현시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순간처럼 느껴 질 것 입니다. 팔만사천대겁을 산다는 비상비비상처천의 존재도 임종에 이르렀을 때는 지난 시절이 순간으로 보일 겁니다.

[하늘사람]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아야 하리.”

[세존]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세속의 자양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S1.4)

2016-06-24
진흙속의연꽃

33. 행복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즐기며 살자.” 라고 말 합니다. 또 은퇴한 사람에게 “이제 즐기며 사십시오.” 라며 말 합니다. 어떤 은퇴자는 ‘버킷리스트’ 를 만들어 세계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죽기전에 가 봐야 할 곳 30 여 군데를 정하고 철마다 나간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라 봅니다.

‘즐기자.’ 라는 말과 함께 ‘행복합시다.’ 라는 말도 유행 입니다. 행복특강, 행복콘서트 등 ‘행복론’ 이 넘쳐 납니다. 모두들 행복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것처럼 말 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행복전도사라 불리는 방송인은 극심한 암의 통증으로 남편과 함께 자살로 인생을 마감 했습니다.

즐김과 행복은 동의어 입니다. 또 ‘재미’ 라는 말도 같은 맥락 입니다. 누군가 행복론을 말한다면 즐김, 쾌락, 재미를 연상케 합니다. 물론 행복이라는 말의 스펙트럼은 광대 합니다. 육체적 쾌락에서부터 정신적 즐거움에 이르기 까지, 심지어 적멸도 행복의 범주에 들어 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복이라 하면 즐기는 것, 재미 있는 것을 말 합니다.

행복을 빠알리어로 ‘수카(sukha)’ 라 합니다. 수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행복, 안락, 안은, 즐거움, 재미 등으로 표현 합니다. 반대 개념은 ‘두카(dukkha)’ 입니다. 고통, 괴로움, 불만족 등으로 표현 합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행복과 불행은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사실 입니다. 그것은 ‘느낌’ 과 관련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이면 거머쥐려 하고, 괴로운 느낌 이면 밀쳐내려 합니다. 다름아닌 욕망과 분노로 사는 것 입니다.

행복과 불행, 안락과 괴로움, 재미와 권태는 이 순간에도 늘 일어 납니다. 탐욕과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괴로움, 사랑과 미움 등 변덕이 죽 끓듯 합니다. 그때 마다 일희일비 합니다. 모두 느낌에 따른 것 입니다.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불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가 세상을 전개시키고, 세상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 안에서 전개 된다.” (A8.6)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늘 함께 있는 것은 불행입니다. 이익과 불이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르침에 답이 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이득이 생겨나면, 그는 그는 ‘이러한 이득이 나에게 생겨났는데, 그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한다.” (A8.6)

지금 행복한 자는 이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형구에 대입하면 “이러한 행복이 나에게 생겨났는데, 그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이다.” 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이나 재미도 마찬가지로 일겁니다. 물론 불행, 괴로움, 불만족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행복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6-06-26
진흙속의연꽃

34. 과거생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매달 마지막 날은 결제 하는 날 입니다. 날 잡아서 매입계산서에 대해서 송금을 합니다. 이른바 익월결제, 다음달 결제 시스템 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등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할 것을 인터넷으로 결제 합니다.

결제날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한 댓가로 계산서를 발행 하지만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입니다. 벌써 몇 달째 결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나오는 말은 “사기꾼” 입니다.

사기꾼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 합니다. 입수된 계산서에 대하여 반드시 결제 합니다. 만일 결제 하지 않고 넘어 간다면 역시 사기꾼 소리를 들을 겁니다. 신용과 관계 되는 일 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신용은 제때 결제에서 생겨 납니다. 그가 아무리 피에이치디(박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제때에 결제 못하면 ‘사기꾼’ 소리 듣습니다.

일인사업자로 살면서 지난날을 되돌아 봅니다. 십년전 처음 개인사업을 시작 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종의 ‘을’ 이라 볼 수 있는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 하고도 제 때에 결제 하지 않았습니다. ‘저 쪽에서 돈을 받아야 준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일 뿐 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신용 없는 자’ 로 보았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사기꾼’ 이라 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겁이 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있어도 제때 결재를 했습니다.

인생의 ‘미결’ 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결제 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거나 심지어 폭력을 가한 것이 해당 됩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업을 지은 것 입니다. 대개 몰라서 업을 지은 겁니다.

이미 지나간 오래 전 일일지라도 업을 지은 건 틀림 없는 사실 입니다. 그런데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는 사실 입니다. 현생에서 받을 수 있고 내생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생을 건너 뛰어 차차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량 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속박 되어 살아 갑니다. 과거생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지은 행위가 익을만한 조건을 만나면 반드시 과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에 대하여 ‘업의 상속자’ 라고 합니다.

지금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지만 천상에 태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 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도 잘 사는 사람은 이전에 선행공덕의 과보일 것 입니다. 착하게 살지만 어렵게 사는 자는 이전 생에서 선행공덕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 입니다.

과거를 되돌아 봅니다. 조직생활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만남이 선연이 되지 않고 악연으로 끝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업을 지었습니다. 아마 조건을 만나면 과보로 나타날 것 입니다.

받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보통 세 달 정도 밀리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포기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리 합니다. 더 이상 결재를
독촉하는 메일을 보내지 않으렵니다. 과거를 되돌아 봅니다. 가르침을
접하기 전에 행해 졌던 무수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는 갚아야 할
빚입니다.

“전에 나는 흥적으로서
양굴리말라라고 알려졌다.
커다란 폭류에 휩쓸렸으나
부처님께 안식처를 얻었네.” (M86)

2016-07-01
진흙속의연꽃

35. 어떤 마음이 내마음인가



그의 손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원두커피를 만드는 손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기형입니다. 손가락이 뒤틀리고 튀어 나온 곳이 있는가 하면 심한 상처자국이 있습니다. 낙산사에서 어느 남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스님의 초등학교친구라 합니다. 최근 만났는데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시절 스무살 무렵 변심한 애인 때문에 저지른 사건이라 합니다. 뜨거운 물로 자살을 기도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후유증만 남기고 자살은 실패로 돌아 갔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에 뒤틀린 손가락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영화 ‘쇼생크의 탈출’ 이 있습니다. 영화속 흑인늬은이는 가석방 심사에서 번번히 퇴짜를 맞습니다. 모범수로 수십년 복역을 하여 가석방 대상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말은 “그때 젊은 놈이 있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며 남말 하듯 말 합니다. 스무살 무렵 살인을 저질러 그때부터 감옥에 있었던 것 입니다.

밴드에 사진이 몇장 올려져 있습니다. 대학친구가 2학년 야유회때 찍은 사진을 올려 놓은 것 입니다. 스물 한 살 시절의 친구들을 보면 세월을 실감케 합니다. 머리가 대부분 장발 입니다. 사진속 인물들을 카톡방에서 만납니다. 이전에는 송년회 등 특별한 날에나 만났으나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실시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나 조사가 있으면 모입니다. 사진속 인물들을 보니 연락이 두절된 친구들도 보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함께 늙어 가지만 사라진 인물들은 사진속 젊은시절 이미지만 남아 있습니다.

사진속 인물중에는 소위 성공했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친구는 미국유학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회사의 전무로 있습니다. 또 한친구는 해외비즈니스로 큰돈을 벌어 자수성가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근근히 살아 갑니다.

스무살 무렵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일까요? 사진속 젊은시절 인물과 지금의 얼굴은 다릅니다. 전체적 틀은 유지하지만 세세하게 뜯어보면 다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진을 보면 자기라고 합니다.

‘쇼생크의 탈출’ 에 나오는 늙은 흑인은 스무살 시절 범죄로 인하여 평생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면접할 때는 남말 하듯이 ‘젊은 시절 그놈’ 이라 합니다. 스님의 초등학교 친구 역시 젊은 시절로 인하여 커다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놈을 부정하고 싶지만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다면 또는 육체에 상처로 남아 있다면 자기 입에 틀림 없습니다.

누구나 스무살시절이 있습니다. 빛나는 시절이기도 하지만 걱정애 휘말린 시절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행위의 상속자 입니다. 남말 하듯이 ‘젊은 시절 그놈이’ 라 하지만 그놈의 행위로 인하여 지금 여기 여기 있게 된 것 입니다.

태어나서 변치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비담마에서는 ‘바왕가의 마음’ 이라 하여 일생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바왕가의 마음을 잠재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얼굴형태가 변하지 않듯이 바왕가의

마음은 역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는 마음이라 합니다.

어제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지 않은 것은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스무살의 마음 역시 조건에 따른 것 입니다. 누군가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후회한다면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조건과 지금의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의 젊은 시절은 그때의 일일 뿐 입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가 있을지라도 한때 그놈이 저지른 것 입니다. 그럼에도 행위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과보는 죽는 순간에 받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때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 때문 입니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한존재는 바왕가의 마음 입니다. 잠재의식이 동요할 때 업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선업을 짓는 것이 좋지만 아무런 업을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라한의 마음 입니다. 미소짓는 마음 입니다.

2016-07-04
진흙속의연꽃

36. 불교의 윤회관을 믿으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 합니다. 아니 일부러 피하려 하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나만 살아 있다면 어떻게 살고자 합니다. 밥 먹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밥은 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픈일을 당해도 일단 먹어 놓고 보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시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죽음이 불쾌하게 여겨졌습니다. 또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막연히 무섭다고 여긴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친근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기 막연히 죽음에 대한 동경입니다. 그래서 특하면 ‘죽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동경이 공존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해 몰랐기 때문 입니다. 죽음을 모른다는 것은 삶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죽음을 모르니 죽음이 무서웠고 또 한편으로 죽으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는 고통(苦樂)에 기반 합니다. 지금 행복한 자는 죽음은 불청객과 같은 것이지만 지금 고통스러운 자에게는 탈출구와 같습니다.

죽음이 안식처로 여겨 질 때가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 때 입니다. 청소년기에 그랬습니다. 무언가 불만족스러웠을 때 죽고 싶었습니다. 죽으면 다 해결 될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막연하게 ‘죽으면 되지’ 라며 죽음을 동경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군대에서 여지없이 깨진 것 입니다. 훈련소에서 강도높은 훈련을 받다 보니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존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고된훈련과 빡빡한 일정에 따라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막연히 ‘죽고싶다’ 라는 말은 사치에 불과 했습니다. 훈련과 배고픔 등 막상 죽을정도의 고통이 따르자 이제는 정반대로 ‘살고 싶다’ 는 욕망만 있을 뿐 이었습니다.

청소년기 막연한 죽음에 대한 동경은 나약한 심성에 기인했습니다. 해병대캠프나 명상센터 등 극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접하면 싹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병시절 막연한 죽음에 대한 동경은 사라졌습니다. 이후 죽고싶다는 생각을 한적이 없습니다.

종종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아쉬워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자살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살을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삶이 괴로운 사람들 입니다. 죽어 버리면 이 고통도 동시에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입니다. 과연 뜻대로 될까요?

불교 TV 사이트에서 정신과전문의 전현수박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유익하고 건질 것이 있습니다. 전현수박사에 따르면

자살자의 심리상태는 일반사람들과 다른 것이라 했습니다. 대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특별한 심리상태에 따른 것이라 합니다. 죽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여러모로 낫다는 환청이 들리기도 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자살을 기도 하는데 실패로 끝났다 하여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자살 시도 하기 때문 입니다.

자살은 상황만 악화시킬 뿐 입니다. 자살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꼬이게 됩니다.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처에 태어나는 요인이 됩니다. 자살할 때 진심으로 인하여 악처에 태어나는 것 입니다. 임종순간의 마음상태에 따라 내생이 결정 되는데, 자기가 자기자신을 죽이는 것은 타인을 죽이는 것과 같이 극도의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대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살자들은 대개 이세상을 한번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인생은 ‘원타임(One time)’ 이기 때문에 하다 안되면 ‘죽어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금하는 일도 서슴없이 자행 합니다. 끔찍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 대부분은 ‘단멸론(斷滅論)’ 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죽는 순간 즉각 다른 세계에 태어납니다. 지신이 지은 업에 적합한 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자살하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불교국가에서 자살률은 극히 낮습니다. 윤회를 믿으면 자살 할 수 없습니다.

전현수박사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스승에게 물어 보았다고 합니다. 불교국가 미얀마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이에 스승은 ‘없다’ 고 했다 합니다. 그러나 요즘 종종 자살소식이 들린다고 합니다. 아마 물질문명 영향 때문일 것이라 합니다.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 입니다. 지은 업에 대한 과보로 인하여 어떤 존재로든지 재생합니다. 불교의 윤회관을 믿는다면 절대로 자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살하면 상황만 악화 시킬 뿐입니다. 문제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변화입니다. 늘 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행무상입니다. 늘 상황은 변합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조건이 바뀌면 변합니다. 상황은 늘 바뀝니다. 지금은 괴로운 상황이지만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듯이 늘 상황은 바뀝니다.

2016-07-06
진흙속의연꽃

37. 수행자의 허물은

수행자의 허물은 크게 보입니다. 일반사람이 음주하면 문제 되지 않지만 수행자가 술마시면 허물이 됩니다. 일반사람들이 도박을 하면 약간 문제 되지만 수행자가 도박하면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때문지 않은 사람,
언제나 청정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머리털만큼의 죄악이라도
구름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네.” (S9:14)



어느 비쿠가 탁발하고 나서 연못에 핀 아름다운 연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향기를 취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취하자 하늘사람이 “그대가 이 연꽃의 향기를 맡을 때/ 그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네./ 이것은 도둑질의 한 가지이니,/ 벗이여, 그대는 향기 도둑이네.” (S9:14) 라 했습니다.

연꽃향기를 맡았다고 해서 비쿠는 줄지에 도둑놈이 되었습니다. 이를 향기도둑이라 했습니다. 비쿠는 억울했을 겁니다. 일반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잘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거친 행위는 도둑질에 틀림 없습니다. 그럼에도 향기 좀 맡았다고 해서 향기도둑이라니!

청정한 삶을 살기로 맹세한 자가 빅쿠입니다. 탐진치를 소멸하는 삶입니다. 매일 연꽃 향기를 취하는 것이 습관화 되었을 때 해탈과 열반의 실현에 방해요소로 작용 합니다.

의도적으로 향기를 취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이런 사실을 하늘사람이 가엽게 여겨 알려 준 것입니다. 청정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머리털만큼의 죄악이라도 구름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라고.

2016-07-05
진흙속의연꽃

38. 생각대로 될 거야

“생각대로 될 거야” 보험설계사 범우님이 준 액자의 글입니다. 여러 개를 선물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무실 책장 위에 올려 놓고 매일 봅니다.



생각대로 된다는 것은 의도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업(業)이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업이 되지 않습니다. 의도가 실려야 업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의도가 실려야 업이 됩니다.

그런데 업의 법칙을 보면 정신적 의도도 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저놈 죽여버려야겠어” 라고 말한다면 정신적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신체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바이블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28)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신적 행위에 대한 것 입니다. 신체적 언어적 행위만 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는 것은 모두 업이 되는 것 입니다.

Cetanāhaṃ, bhikkhave,
kammaṃ vadāmi.
Cetayitvā kammaṃ
karoti-kāyena vācāya manasā.

“수행승들이여,
나는 의도가 행위라고 말한다.
의도하고 나서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위한다.” (A6.63)

의도가 행위라 했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kamma’ 로서 업이라 합니다. 의도한 것은 그것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모두 업이 됩니다. “생각대로 될 거야” 했을 때 이는 “의도하는 대로 될거야”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2016-07-09
진흙속의연꽃

39. 생각과 실제 사이에서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길로 갑니다. 사실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 입니다. 매일 죽음의 길로 가는데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뉴스에서는 죽음에 대한 보도가 넘쳐 나지만 죽음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을 모르기 때문 입니다. 생각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생겨 난 것 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이고 실제는 무엇일까요?

사실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입니다. 영어로 팩트(fact)라 합니다. 사실이 있는 그대로의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하여 반드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는 “있는 사실이나 현실 그대로의 또는 나타나거나 당하는 그대로의 상태나 형편”을 말 합니다. 사실이나 실제의 공통점은 현재입니다. 현재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판단 했을 경우 “생각대로 안되네 라든지 “실제하고 다른데” 라는 말을 할 겁니다.

사실이 다르고 실제 아닌 경우는 많습니다. 현상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하여 식당이나 매장을 확장하여 낭패를 보는 것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와 다른 것입니다.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상황에 닥치면 그제서야 잘못 판단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사람들이 즐거움을 행복이라 했을 때 거꾸로 괴로운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얘기한 것 입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상에서 실재를 보았습니다. 존재에 대하여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보니 공통적으로 무상, 고, 무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현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아 진리를 본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불사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에 대한 지혜, 사실에 대한 진리 입니다.

“생각대로 될거야” 사무실 책장위 액자에 써 있는 문구입니다. 현상에 대해 제대로 파악했을 때 생각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내키는 대로 했다면 “이거 생각대로 안되는데” 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기르침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방대한 빠알리니까야를 열어 볼 것입니다.

2016-07-14
진흙속의연꽃

40. 장마철에 보는 모락산



모락산이 오늘 따라 장엄하게 보입니다.
구름에 둘러 쌓인 모습이
신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장마철 자연과 인공의 파노라마입니다.

후텋지근한 무더위에 내리는 비는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분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살 맛 납니다.

성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다고 꽃을 찾아 다녔는데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열매를 남겼습니다.
튼실한 열매를 보면 오지기 그지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자연현상은 변화무쌍합니다.
계절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감에 따라 인생도 변해 갑니다.
꽃이 피면 열매 맺듯이, 도를 이루어 과를 맺어야 겠습니다.

2016-07-16
진흙속의연꽃

41.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부처님은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이기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공덕행을 한 것입니다. 토끼로 살았을 때는 사냥꾼을 위하여 기꺼이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익이 되는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부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공덕을 쌓으라고 합니다. 공덕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업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 되는 것이 보시와 지계입니다. 보시를 함으로 인해 선과보를 쌓고 지계함으로 인해 악처에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선업공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공덕의 힘으로 언젠가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그것은 선정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아비담마논장에 따르면 보시 등 선한행위를

하면 그 순간 선업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기쁜 마음으로 보시했을 때 공덕이 되는 행위는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인식과정 17 단계에서 자와나라 불리는 속행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선정삼매에 들면 속행이 무수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같은 마음이 지속 되기 때문입니다. 10 분 동안 선정삼매에 들었을 때, 보시 등으로 잠시 기쁨과 함께 하는 마음과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1 시간 동안 선정에 들었다면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는 결과가 됩니다.

선정은 원래 선한 것이기 때문에 1 시간 동안 선정에 들어 갔다는 것은 ‘엄청난 선업공덕’을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선업 공덕은 착한 행위를 하여 얻는 공덕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 했습니다. 전생부터 수행했다면 그 공덕은 더 클 것입니다. 이런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그 공덕의 힘으로 부처를 이룰 것이라 합니다. 그것은 탐진치의 소멸, 즉 마음에 남아있는 오염원의 소멸이기 때문입니다.

양곳따라니까야 벨라마의 경에 따르면 승원을 지어 보시하는 것보다 잠시라도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이 더 큰 공덕행이라 했습니다. 보시하여 공덕행을 쌓는 것도 좋지만 수행을 하는 것이 더 나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자나 수행녀나 남녀 재가신자가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고 올바르게 실천하고, 원리에 따라 행한다면, 그것이 최상의 공양으로 여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배하고 예경하고 숭배하는 것이다.” (D16) 라 했습니다.

불자들은 향, 초, 꽃 등의 공양물을 올려 놓고 소원을 빕니다. 또 보시하고 지계하는 삶을 살아 갑니다. 그런데 가장 수승한 것은 가르침의 실천이라 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내고, 단 한순간이라도 무상을 자각한다면 그것이 더 큰 공덕행이라 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016-07-20
진흙속의연꽃

42. 급시우와 함께 오늘을



비가 도시를 축축히 적시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급시우입니다.
엇그제 까지만 해도 연일 계속되는
열대의 밤으로 잠 못 이루었습니다.

커다란 우산과 함께 비를 맞으며
늘 다니는 학의천을 걸어 갑니다.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초목들도 생기를 되찾은 듯 합니다.

이 비가 그치면 또 다시
열대의 밤이 시작 될 것입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시우와 함께 오늘을 보내면 됩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몇 일 전 사온
덩굴자스민에서 은은한 향내가 납니다.
향기중의 최상은 자스민이라 합니다.
핸드드립커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2016-07-29
진흙속의연꽃

43. 마음의 장애와 대자유



해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벗어남’입니다. 현재 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자유(自由) 또는 해방(解放)을 뜻하는데, 몸과 마음의 고뇌와 속박의 원인인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것” 라 설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윤회(samsara)의 속박(bandha)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정의는 힌두교식 해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초기경전에 등장하는 해탈에는 여럿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인 열반에 이르는 수단이 여럿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산에 오를 때 정상은 하나이지만 올라 가는 길은 여럿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요약해 보면 육신통해탈, 무색계선정해탈, 혜해탈 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런 마음에서 지혜가 나올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면 해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이 인정해 주어야
해탈자라 볼 수 있을까요? 초기경전에 따르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아 있는 번뇌가 무엇인지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지는 스스로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해탈했는지는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해탈지’ 또는 ‘해탈지견’이라 합니다.
해탈지견이 일어나면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를 아라한선언이라 합니다. 선불교식으로 한다면
오도송입니다.

깨달은 자를 자유인이라 합니다. 그것도 ‘대자유인’이라는 칭호를
붙여 줍니다. 어디에 가든 걸림이 없습니다. 확고한 마음의 해탈을
이루었을 때 어디에 가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행막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대자유를 바랍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
분노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탐, 진, 치 세 가지만 언급
됐지만 이들을 뿌리로 하는 마음부수까지 합하면 여럿 됩니다. 다만
탐진치는 단지 모든 번뇌들의 대표주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번뇌로 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번뇌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여실지견’ 하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라는 것 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담마(dhamma)를
말합니다. 이는 ‘사실에 대한 지혜’를 요청합니다. 즉 현상에 대하여
무상한 것, 괴로운 것. 실체가 없는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법인으로 통찰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대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늘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역류도(逆流道)를 추구합니다.

Yaṃ pare sukhato āhu
tadariyā āhu dukkhato

Yaṃ pare dukkhato āhu
tadariyā sukhato vidū.

“다른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
고귀한 님은 괴롭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괴롭다고 말하는 것,
고귀한 님은 즐겁다고 하네.” (S35:136)

2016-08-02
진흙속의연꽃

44. 자연의 무상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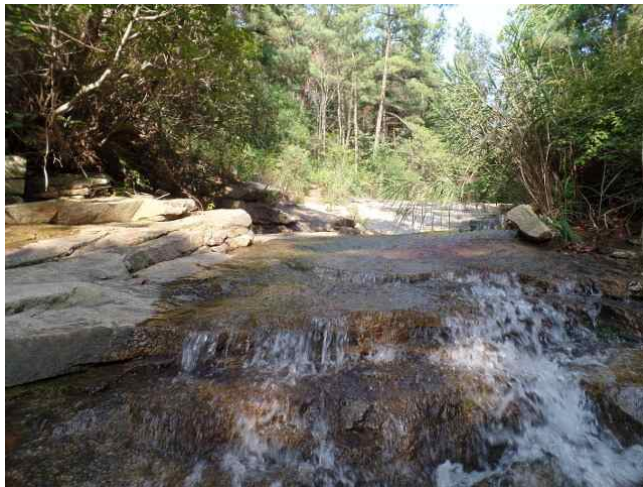
그야말로 작열하는 날씨입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오후 가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최고 35도의 뜨거운 날씨가 몇 일 지속될 것이라 합니다. 이른바 불볕더위 입니다.

불볕더위가 무더위보다 그래도 낫습니다.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은 무더위가 오면 불쾌지수가 상승하지만, 온도는 높고 습도는 낮은 불볕더위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에어콘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서늘합니다. 그러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도시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계곡을 찾았습니다.

우리계곡은 국기봉 아래서부터 시작되어 서울대수목원까지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엇그제 비가 와서 인지 수량이 풍부합니다. 쿵쿵거리는 물소리가 속을 후련하게 해 줍니다.

모두 암반으로 되어 있는 우리계곡은 깨끗합니다. 좀더 아래 쪽으로 내려 갔더니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유명계곡의 북적거림과는 다릅니다. 이곳을 아는 사람들이 찾는 일종의 비밀계곡과도 같습니다.



우리계곡에 도착하여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다른 세상에 온 듯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시원함과는 견줄바 아닙니다.

작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요란 합니다. 슷따니빠따 ‘날라까의 경(Sn3.11)’ 에 따르면 “작은 여울들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stn720) 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빈수레가 굴러 가는 것처럼 소란스럽게 흐르는 여울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물에 발을 담그니 다 이상 더위라는 말은 필요치 않습니다. 피서 떠난다하여 공항이 북새통이고 유명계곡이 붐빈다 하지만 이곳만한 곳은 없습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빵빵하게 틀어도 이곳 우리계곡만한 곳이 없습니다.

암반의 계곡에는 단차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폭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응시하고 있노라면 빨려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흐르는 계곡물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매순간 다른 물 입니다. 끊임없이 내려 오는 물이 갖가지 형태의 암반을 만나면 모양을 달리 합니다. 물의 유연함을 잘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물은 이내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물은 이전의 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무상합니다. 계곡물은 끊임 없이 변하는모습을 보여 줍니다. 주변의 소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물은 대상에 따라 형태를 달리 하며 끊임 없이 변해 갑니다. 마음도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마음은 이전의 마음이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었으므로 새로 일어난 마음 입니다. 한번 지나간 마음은 이전의 마음으로서 기억속에만 있습니다. 새로 일어날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알 수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 마음이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마음이 소멸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마음 역시 상속하여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 갑니다. 지금 소리내어 흐르는 여울물도 큰 강에서는 소리 없이 흘러 대양에 도달하듯이, 지금 요동치는 마음도 성자의 침묵이 되어 열반의 바다에

이르고 말 것 입니다. 흐르는 물을 보면 자연이 무언의 무상설법을 해 주는 듯 합니다.

2016-08-04
진흙속의연꽃

45. 슬픔은 집착의 대상에서

“집착 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 티벳사자의 서에 나오는 말이다. 중음신이 되어 홀로 무서운 길을 가고 있을 때 빛은 두려워하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형상에 이끌리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티벳사자의 서는 일종의 죽음지침서라 볼 수 있다. 죽고 난 다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알려 주는 죽음의 책이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이 바로 ‘집착’ 이었다.

집착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이다. 과도한 집착이니 광적 집착이니 하는 말들이 떠 올려진다. 대개 파멸로 끝나게 된다. 영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1971년)’ 를 보면 여자의 과도한 사랑에 대한 집착이 결국 커다란 불행을 가져와 모두 파멸로 귀결 된 것을 알 수 있다.

집착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무언가 몰두 할 때 이다. 또 무언가 모으고 수집하는 행위이다. 고서를 모으는 행위는 집념이 작용한 것이고 집착이라 볼 수 있다. 운동을 하는 것, 독서를 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노래를 하는 것, 글쓰기 등은 집념과 집착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집착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극대화 시켜주는 추동자가 될 수 있다.

초기불교에서 집착은 늘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초전법륜경에서는 ‘오취온’ 이라 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집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괴로움이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결과는 슬픔에서 시작하여 절망으로 귀결된다. 이를 표현한 긴 복합어가 빠알리어로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이다. 이를 풀이하면 슬픔(soka), 비탄(parideva), 고통(dukkha), 근심(domanassa), 절망(upāyāsā)이라는 뜻이다.

집착은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으로 이끌고 만다. 과도한 집착이나 광적인 집착은 말 할 것도 없다. 집착은 십이연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집착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집착,
즉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
실체의 이론에 대한 집착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집착이라고 한다.” (S12:2)



집착을 빠알리어로 우빠다나(upādāna)라 한다. 한번 들러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식탐이 있는 사람은 맛있는 곳을 찾아 어디든 달려간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단단히 들은 것이다. 한번 도박에 빠지면 재산을 다 탕진하기 전에는 빠져 나올 수 없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집착이다.

한번 사상이 형성되면 여간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단멸론적 견해를 가진 자에게 도덕적으로 금하는 것을

쉽게 어기는 것은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집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관습이나 전통에 집착하는 자들도 있다. 자신의 몸을 학대 하면 해탈할 수 있다하여 고행을 일삼는 자들이 해당된다. 이는 잘못된 수행방법에 기인한다. 이를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이라 한다.

실체의 이론에 대한 집착이 있다. 이는 유신견을 뜻하며 오온에 대한 집착, 즉 오취온이라 볼 수 있다. 몸에 대하여 내것이라는 집착이 생겨서, 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가꾸고 꾸미고자 한다. 맛 있는 것을 먹고 헬스장에서 건강관리 하고, 심지어 성형하는 것도 몸을 내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몸 뿐만 아니라 느낌, 지각, 의도, 정신도 마찬가지이다.

네 가지 집착중에 오온에 대한 집착을 부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했다. 오온을 내것이라 했을 때 집착된 것으로 본 것이다. 부처님이 생노병사 등 고성제를 설했을 때 결론적으로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pañcupādānakkhandhā dukkhā)’이라 했다. 이렇게 본다면 고성제는 오취온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하여 이 몸과 마음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이 몸과 마음 밖에서 찾을 것이 따로 없음을 말한다.

오취온이 고성제라는 선언은 놀라운 것이다.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듯이,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 날 일만 남은 것이다. 그것이 집성제이고, 멸성제이고, 도성제이다.

십이연기에 따르면 집착은 존재하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는 것이다.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집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유발하고 만다. 이렇게 본다면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이미 늦은 말이다. 그 이전 단계에서 알아 차렸어야 한다.

위빠사나 수행에서는 느낌단계에서 알아 차릴 것을 요청한다. 감각접촉이 일어 났을때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덤덤한 느낌이 있을 때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느낌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갈애로 전개 된다. 이미 늦은 것이다. 십이연기에서 무명과 갈애는 연기를 회전시키는 동력이다. 특히 갈애는 미래의 과보를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갈애가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원인이라 하여 집성제로 설명한다.

갈애가 더욱 강화 된 것이 집착이다. 그래서 집착으로 조건으로 업으로서 존재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집착은 새로운 태어남을 유발하는 조건이 된다. 오온에 집착했을 때 태어남을 유발하여 삼계를 윤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무언가 집착하는 행위는 윤회하는 존재가 되기 쉽다.

[하늘사람]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기뻐하고,
외양간 주인은 소 때문에 기뻐하듯이
사람의 기쁨은 집착의 대상에서 생겨나니
집착하지 않는 자는 기뻐할 것도 없으리.” (S1.12)

상윳따니까야 ‘기뻐함의 경’에서 천신이 부처님에게 계송으로 말한 것이다. 천신은 무언가 집착하는 것에 대하여 아름답게 보았다. 무언가 몰두 하고 있는 사람이 좋게 보이듯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인 것이다. 그 결과 재산이 늘어나고 자손이 생겨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역류도를 설한 부처님은 이렇게 계송으로 말씀 했다.

[세존]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슬퍼하고,
외양간 주인은 소 때문에 슬퍼하듯이
사람의 슬픔은 집착의 대상에서 생겨나니
집착하지 않는 자는 기뻐할 것도 없으리.” (S1.12)

고대인도에서 아들과 소는 재산과 마찬가지로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이었다. 하늘사람도 아들을 가진 것이 기쁨이라 하였고 소를 가진 것도 기쁨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런 기쁨의 대상이 있기 때문 기뻐하는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계송을 읊으셨다. 아들과 소는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슬픔의 대상이라 하였다.

그것은 집착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집착은 다름 아닌 윤회의 땀감이다. 집착하면 할수록 세세생생 윤회하게 된다. 집착하면 결국 슬픔(soka), 비탄(parideva), 고통(dukkha), 근심(domanassa), 절망(upāyāsā)으로 귀결되고 만다. 그래서 “사람의 슬픔은 집착의 대상에서 생겨나니” 라 했을 것이다.

2016-08-08
진흙속의연꽃

46. 마라(mara) 하자는 대로

욕망의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욕망의 포로가 되어 욕망이 하자는 대로 살아 갔을 때 어떤 결과로 될까요? 수행승과 관련하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명예를 여윈 위없는 안온을 얻는 데 장애가 된다.” (S17.1)

이득과 명예와 칭송 이 세 가지는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이라 했습니다. 세속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에 함몰 되면 위없는 안온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고 했습니다. 출가목적인 해탈과 열반의 방해요소로 작용함을 말 합니다.

욕망에 굴복하여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수행승에 대하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어떤 어부가 미끼를 단 낚싯바늘을 깊은 연못에 던지면
눈을 가진 물고기가 그것을 삼키는 것과 같다. (S17.1)”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사용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물고기가 단지 눈앞의 먹이에 눈이 멀어 덥썩 물었을 때 코 췌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후의 삶은 어부에 달려 있습니다. 어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 입니다.

어부를 악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추구 했을 때 미끼의 낚시바늘을 무는 것과 같습니다. 무는 순간 코 췌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터는 마라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합니다. 악마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추구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파멸을 위해 익어가는 갈대의 열매와 같이.” (Dhp 164)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맺으면 죽는 식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나무와 바나나(파초)와 갈대 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의 사건은 열매를 맺으면 죽는 대나무와 바나나(파초)와 갈대와 같이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가르침 입니다.

정신과 육체로 결합된 인간은 욕망에 지배 되기 쉽습니다. 특히 배꼽아래는 욕망의 세계나 다름 없습니다. 배꼽 위는 이성의 세계로 통제 되지만 배꼽아래는 통제불능이기 쉽습니다. 그래서일까 자이니즘에서는 육체를 확대하여 해탈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욕망에 굴복해 살아 갑니다. 욕망이 하자는 대로 살아 갑니다.

출가자는 이득과 명예와 칭송으로 살아가고, 재가자는 욕망으로 살아
갔을 때 어부의 낚시 바늘에 꿰인 것과 다름 없습니다. 어부 하자는
대로, 마라 하자는 대로 살아갑니다. 악마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2016-08-12
진흙속의연꽃

47. 탐진치에서 무거운 물질이



“제가 이래 수행을 해 보니까 우리환자들이 왜 몸이 무겁고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박사의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본 전현수박사의 불광법회 강연입니다. 전현수박사는 법회에서 자신의 미얀마 과옥수행센터에서 수행체험담을 들려 주면서 정신과 환자치료와 관련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진치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에 관계되는 무거운 물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행할 때는 한번은 유익한 마음을 일으켜요. 또 한번은 해로운 마음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새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소리는 물질이에요, 구체적인 물질 18가지가 있는데, ‘아, 저거는 소리다’ 하면 유익한 마음이 짹 하면서 속행에서 아주 좋은 서른 두 가지 마음이 짹 일어나요. 그러면서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또 그것들은 좋은 과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소리를 딱 듣고 ‘참, 좋은 소리다. 내일 또 들어야지’ 이러면 그게 탐진치의 탐에 머물러요. 그렇게 되면 속행에서 하나도 안좋아요. 그것을 일부로 시켜요. 한번은

유익한 마음, 한번은 해로운 마음을. 그거 하고 나면 다시는 탐진치의 마음을 안일으킵니다.”

(전현수박사, [불광사·불광법회])

20160710.일요법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현수 원장)

<https://www.youtube.com/watch?v=9ebC1eBABH0>

정신과 환자들이 기분이 침울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탐진치의 마음 때문이라 합니다. 탐욕의 마음을 일으키면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는 속행에서 불선과보를 내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를 새소리로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전현수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상웃따니까야 ‘향기도독의 경(S9.14)’ 이 생각납니다. 경에서 어느 비구는 탁발이 끝난 다음에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을 지나가게 됩니다. 연꽃을 보고서 ‘참, 아름답구나’ 라 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도 가벼울 것입니다. 더구나 향기까지 났을 때 ‘아, 향기가 좋구나’ 라 하여 역시 선한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내일도, 모래도 향기를 취하고자 한다면 이미 욕망의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지켜 본 하늘사람이 비구에게 “그대가 이 연꽃의 향기를 맡을 때/ 그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네./ 이것은 도둑질의 한 가지이니,/ 벗이여, 그대는 향기 도둑이네.” (S9.14) 라 했습니다.

꽃이 피어 있으면 볼 수밖에 없고, 향기가 나면 냄새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습관화 되면 욕망이 개입된 것입니다. 비구는 한번만 향기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탁발이 끝나면 연못에 가서 연꽃향기를 취하곤 했습니다. 이는 향기에 대한 갈애를 일으켜 향기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신이 향기도둑이라 한 것입니다.

천신은 비구를 가엽게 여겨 향기도둑이라 한 것입니다.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는 비구가 습관적으로 향기를 취했을 때, 향기가 마음에 든다면, 다음 날도 꽃냄새를 맡게 되고, 그러한 마음이 탐욕이 되고, 갈애가 될 것입니다. 향기에 대한 갈애에 사로잡히면, 갈애는 해탈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천신은 비구의 행위를 가엽게 여겨 잘못을 알려 주고자 되어 “벗이여, 그대는 향기 도둑이네” 라 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보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또 다시 보고자 한다면 욕망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탐진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져서 불선업도 무거워질 것입니다. 무거워지면 악처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려면 한번 보는 것으로, 한번 듣는 것으로, 한번 냄새 맡은 것으로 끝내야 할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전현수박사의 유튜브 강연을 보면서 내용이 좋아 잠시 일을 중단하고 글을 써 보았습니다.

2016-08-16
진흙속의연꽃

48.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거든



이른 아침 일터로 향했습니다. 매일 걸어 가지만 폭염의 날씨가 아침에도 기온이 높아 버스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거리는 차분합니다. 차량도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폭염이 시작 되겠지만 이른 아침은 공기도 상쾌 하고 무엇보다 거리가 깨끗해 보입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청소부가 열심히 비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빗자루로 차도와 인도 사이의 구석을 쓸면 담배꽂초, 종이조각리 등 각종 쓰레기가 또 한손에 들고 있는 바구니에 빨려 가듯이 들어 갑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 보았습니다. 거리 이곳 저곳에 있는 쓰레기를 빨아 내는 청소기처럼 비질 하는 모습이 보기에 가슴을 탁 트이게 했습니다.

거리의 청소부를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리에 담배꽂초라든가 껌종이, 아이스크림 막대 등 갖가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을 때 청소부의 할일 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거리가

깨끗하다면 청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청소부를 고용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청소부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청소할 일이 없을 때 실업자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부가 청소할 일이 없을 때 청소부라는 직업은 사라지게 됩니다. 청소부로서 일을 계속하려면 거리에 어느 정도 쓰레기가 있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순은 사실 삶의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개업했을 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는 문구가 담긴 화환을 보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환자가 많아야 병원이 잘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환자가 많을수록 수입도 많아져서 병원이 발전 될 것입니다. 누군가 병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환자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는 다름 아닌 아픈사람이 많기를 바라는 것이 됩니다. 이런 논리로 따지면 변호사가 개업 했을 때 누군가 “돈 많이 버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범죄를 조장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있어서 청소부라는 직업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이 있어서 의사가 있고, 범죄자들이 있어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를 돈과 연결시킨다면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신성한 일이 됩니다. 거리의 청소부가 이른 아침 비질을 할 때 세상을 깨끗이 한다고 의미를 부여 하면 거룩한 일이 됩니다. 이렇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의사가 아픈 자를 치료할 때 숭고한 일이 되는 것이고, 변호사가 불의의 맞서 싸우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고 있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거룩한 일이 됩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16-08-21
진흙속의연꽃

49. 비를 뿌리려거든



비가 옵니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비가 이제사 내립니다.
잠결에 추적추적 비내리는 소리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 하늘이 먹칠을 한 듯 했습니다.
하늘이라는 커다란 도화지에
온통 회색칠 되어 있어서 음울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뻐해 했습니다.

사상 두 번째로 긴 열대의 밤이었습니다.
이 뜨거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인내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내력 테스트 하듯 예보는 매번 빗나갔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과일은 타 들어 갔습니다.
마트의 배추는 한개에 8천원 하여 금치가 됐습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스콜이라도 내려 숨통이 트이지만
무려 25 일 동안이나 대지가 달았습니다.

비가 옵니다.
주룩주룩 반가운 비소리에 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늘 바라는 것이지만 비도 적당히 내렸으면 합니다.
바람도 적당히 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연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연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남도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망입니다.
하물며 자연현상도 내 뜻대로 되기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입니다.

폭우, 태풍, 폭설, 지진, 쓰나미 등
온갖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신이 화가나서 신이 벌을 주기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구의 대기가 변하고 지각이 꿈틀거리 일어난 현상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 없이 무상하게 변하는 자연속의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온 도시를 촉촉하게 적셔 주는
회색의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나약한 존재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 봅니다.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삼천리 방방곡곡 골고루 적당히 뿌리소서!

Vuṭṭhi alasaṃ analasañca
mātā puttama posati,
Vuṭṭhim bhūtūpajīvanti
ye paṇā paṭhavimsitāti.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듯,

비가 게으르거나 게으르지 않은 자 모두를 키우니,
비의 존재가 참으로
이 지상에 사는 생명들을 키우네.”
(S1:80)

2016-08-26
진흙속의연꽃

50. 무욕의 아침



상쾌한 아침입니다.
온도와 습도는 적당하여 쾌적합니다.
하늘은 맑고 청명 합니다.
다시 축복받은 계절이 돌아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례 없는 무더위와 열대야의 나날이었습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살아 있는 한 겪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이 올 줄 알기에 참고 견뎠습니다.

학의천의 아침은 평화롭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비갠후 다음날은 세상이 빛납니다.
빛나는 아침에 나팔꽃이 팽팽 합니다.
살맛 나는 계절이 돌아 왔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이 아침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의 무리가 쏟아같이 달려 갑니다.
그동안 쉬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는지 사람들은 경보합니다.

일터로 가는 길, 학의천 길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토요일이지만 일거리가 있다는 것에 안심 합니다.
또 무언가 써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무욕의 아침입니다.

2016-08-27
진흙속의연꽃

51. 매일 부활하는 아침



매일 아침 부활 합니다.
어제의 삶은 이전의 삶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은 어제의 삶이 있었기에 성립합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은 이전 삶의 상속자입니다.

어제의 행위는 어제의 일 입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과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조건만 맞으면 발현됩니다.
어떤 행위를 하든지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안다면 걸림없는 삶입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침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항상 법답게 항상 정의롭게 살고자 합니다.

2916-09-05
진흙속의연꽃

52. 게으름과의 전쟁

게으름과의 전쟁입니다. 늘 게으름을 탓 합니다. 오늘날 현재 위치가 게으름 때문일 것 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라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족족, 생각나는 대로 족족 하다 보면 무척 바쁩니다. 지금 할 일이 생각 났을 때 해야 합니다. 전화 걸 일 있으면 지금 걸어야 합니다. 관리비나 세금 낼 일 있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게을러도 끼니는 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게을러도 술을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게을러도 입에 담배물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게을러도 TV는 꼭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있어서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죽은 자와 같습니다. 파산한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숨만 쉬고 있을 뿐 입니다. 게으른 자는 ‘좀비’ 와 같습니다. 먹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투명인간’ 과 같습니다.

이미 죽은 자, 좀비, 투명인간, 게으른 자에게 붙일 수 있는 칭호 입니다. 게으른 자의 반대는 부지런 한 자 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자 입니다. 그것도 지금 하는 자 입니다. 생각 날 때 바로 하는 자 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바쁩니다.

바쁘게 사는 자는 부지런한 자 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얼리버드(Early Bird), 새벽형 인간입니다. 단풍철 새벽에 출발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하면 효율이 높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새벽을 사랑 합니다. 동트는 새벽과 함께 합니다.



동이 트는 새벽에 아직 해는 떠 있지 않습니다. 동이 트면 동녘하늘이 흰해집니다. 새벽은 해가 뜨기 전에 오는 전조입니다. 성공의 전조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 함이 전제 되어야 성공이라는 과실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즐길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즐길거리만 찾다 보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나듯이 즐기만 하면 ‘즐김의 길’이 생겨납니다. 더 많이 즐길수록 확장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만 가게 됩니다. 그 길의 끝은 어디일까요? 죽음입니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이것 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늘 바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늘 깨어 있다면, 늘 깨어 있는 채로 있다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고 불방일자는 죽지 않는 자라 했습니다.

게으름과의 전쟁입니다. 게으름과의 전쟁에서 매번 패합니다. 언젠가는 이길 날이 있겠지요.

2016-10-23
진흙속의연꽃

53. 이 비 그치면



같은 어둠이라도
저녁과 새벽은 다릅니다.
저녁은 혼돈이고
새벽은 평온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같은 비라도
봄비와 가을비는 다릅니다.
봄비는 생명이지만
가을비는 죽음과 같습니다.

해는 갈수록 짧아지고
옷은 점점 두터워집니다.
그럼에도 새벽은 옵니다.
이 비 그치면 햇볕 나겠지요.

2016-10-25
진흙속의연꽃

54. 종로 3가에 가면

매주 화요일 저녁 종로 3가에 갑니다. 수행처가 있습니다. 3가에 가면 약간 충격 받습니다. 노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종로 3가 거리의 사람들 상당수가 노인입니다. 전철역에서 낙원상가 방향 이면 도로에는 그야말로 노인천국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집 역시 노인들이 점령했습니다.



종로 3가 거리에 노인들로 넘쳐 납니다. 전반적으로 음울한 분위기입니다. 무표정한 얼굴, 힘없어 보이는 신체, 허름한 옷차림 등이 특징입니다. 미래 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갈수록 노인인구 역시 늘어 납니다. 이삼십년 후면 길거리에 노인들로 넘쳐 날 것입니다. 지금 종로 3가에서 보는 절망적 모습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면 사회활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대학가의 분위기와 종로 3가의 분위기가 말해 줍니다. 고령화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후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할까요?

노후대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난하고 고독하게 살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삼사십년전 세워 놓았던 노후대책은 무력화 되고 있습니다. 은퇴후 십오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 놓았다면 기대수명이 배로 증가한 요즘 노후자금은 중간에서 바닥나 버립니다.

노년에는 모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은 무엇일까요? 함께 모여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유 있다 해도 개인적으로 노인문제를 해결 하기에는 벅칩니다. 그러나 모여서 공동생활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수행공동체이면 금상첨화이겠지요.

종로 3가를 지날 때 마다 기묘한 느낌을 갖습니다. 비틀거리며 힘없이 걷는 모습, 촛점을 잃은 듯한 뺨한 눈동자,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종로 3가에 가면 절망을 봅니다.

2016-10-25
진흙속의연꽃

55. 첩첩산중 파노라마에

천마산에 올랐습니다. 일요일 편하게 쉴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TV나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에 치여 살았는데 또다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한시간 거리에 천마산이 있습니다. 해발 812미터, 결코 만만치 않은 산입니다. 꼭대기가 첩탐처럼 솟았는데 달마대사가 어깨를 짚고 앉아 있는 모습이라 합니다. 그 옛날 의적 임꺽정의 활동무대라고도 합니다.



십 수 년전 천마산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번뇌가 많았던 시절 잠의 질이 좋지 않았을 때 천마산에 있었습니다. 가파른 돌길이었는데 돌들이 황금으로 빛났습니다. 한번도 가본적이 없었지만 ‘천마산’이었습니다. 아마 지도에서 본 것이 꿈속에 나타난 것이라 여겨집니다.

천마산은 고산준령의 이미지 입니다. 언젠가는 가 보아야 될 산이라 생각 했습니다. 시절인연이 되어 천마산에 왔습니다. 그러나 꿈속의 천마산 이미지는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밋밋한 산세 입니다.



한발한발 걸으니 번뇌가 떨어져 나가는 듯 합니다. 편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일어 납니다. 때로 생각에 꼬달려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 입니다. 칠팔십프로가 과거에 대한 것, 일이십프로가 미래에 대한 것, 현재에 대한 것은 불과 몇 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등산하다 보면 생각에서 해방 됩니다. 한발 한발 내 딛을 때 숨이 가빠집니다.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대상에 집중할 때 번뇌는 사라집니다. 경행 할 때 왼발, 오른발 하며 2 단계, 3 단계, 6 단계, 9 단계로 명칭을 부여하여 집중하면 잡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좌선할 때 호흡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대상에 집중해 있을 때 설령 다른 생각이 치고 오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등산할 때 오로지 발에 집중하면 잡념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오로지 정신과 물질만 있는 듯 합니다. 발을 옮기려는 의도와 의도에 따른 발의 움직임만 있을 뿐 입니다. 여기에 잡념이 치고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설령 치고 들어오더라도 금방 사라집니다.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어 생각의 기와집을 짓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에 가면 정상으로 향합니다. 요즈음은 둘레길이 있어서 굳이 정상까지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산에 가면 정상에 올라야 맛이 납니다. 산이 있어 산에 가고 정상이 있어 정상에 오릅니다. 그런데 정상까지는 험난하기만 합니다. 너무 힘들어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 입니다. 쉽게 살려고 하는 본능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게으름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힘들게 올라온 보람을 느낍니다. 게으른 자들은 맛 볼 수 없는 성취감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무엇보다 게으름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정상은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길에 올라 가야 할 수 많은 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기에는 힘이 듭니다. 동반자와 함께 올라 간다면 힘이 덜 들 것 입니다. 무리지어 간다면 훨씬 더 쉽게 갈 것 입니다. 무리 중에는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길을 가 본 자 입니다. 정상을 가 본 자 입니다. 사막에서 대상의 무리를 이끄는 자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별호 중에 ‘삿타데와마눗사낭(satthādeva-manussānaṃ)’ 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천인사(天人師)’ 라 합니다.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신들과 인간을 이끄는 대상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빠알리어 삿타가 ‘a caravan’ 의 뜻입니다. 또 ‘A teacher, master’ 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 불수념에서 넛데사를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 했습니다.

“대상의 지도자는 대상들로 하여금 사막을 건너게 하고, 도적들이 들끓는 사막을 건너게 하고, 야수들이 극성을 부리는 황무지를 건너게 하고, 먹거리가 없는 황무지를 건너게 하고, 물 없는 사막을 건너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잡고서 건너가게 하고 안은한 곳으로 이르게 한다. 이와 같이 세존은 스승이시고 대상의 지도자로서 대상들로 하여금 사막을 건너게 하시고 태어남의 사막을 건너게 하신다.” (Ndi.446)

천인사가 단지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 하여 스승의 이미지가 강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빠알리어 삿타는 대상의 뜻으로 대상의 지도자가

본래의 뜻입니다. 사막을 건너가게 하고 황무지를 건너가게 하는데 있어서 경험자를 말합니다. 먼저 건너 간 자의 말을 들으면 사막이나 황무지를 안전하게 건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태어남의 사막을 건너 가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천마산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 봅니다. 세상이 발 아래 펼쳐집니다. 첩첩산중의 파노라마에 세상사를 잠시 접어 두었습니다.



2016-10-31
진흙속의연꽃

56.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어요

지난 주 토요일 친구 아들 결혼식에 참석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인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참석하는 결혼식에서 종종 봅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이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는 당부의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 신랑과 신부의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어머니도 발언할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

신세대의 결혼식에서 또 하나 볼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퍼포먼스입니다. 대개 들러리가 나와 노래 부른다든가 율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날 결혼식에는 놀랍게도 신랑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들러리들이 음악에 맞추어 율동을 시작하자 신랑도 함께 한 것입니다. 더구나 신랑은 노래까지 했습니다. 수준급입니다. 가수가 공연한 것 같습니다. 요즘 결혼식이 날로 진화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퍼포연에서 친구들이 테이블에 동그랗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열 석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집에서 식사할 때 회전하는 동그란

데이블입니다. 한 친구가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카톡방이 있어서 자주 글을 올립니다. 글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단체카톡방은 놀이터나 다름 없습니다. 친구 아내는 글을 잘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광팬이에요” 라 했습니다. 이 말에 크게 고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글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스마트폰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공유하는 부부는 드물 것이라 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프라이버시는 있기 때문에 보여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톡을 보고서 오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입니다. 사적인 대화가 노출 됐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나 카톡 등으로 인한 문제가 많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공유하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스마트폰 공용하는 부부가 종종 있습니다. 대개 부부간 금슬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밀이 없기에 모든 것을 오픈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심동체(一心同體)라 볼 수 있습니다. 일심동체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몸 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상입니다. 그러나 드문 현상입니다. 열에 하나 정도 될까요? 대부분 ‘이심이체(二心二體)’ 입니다. 두 마음 두 몸입니다. 열에 아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가 부부 사이 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일심동체일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비밀이 없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 하기 때문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어요.” 라고.

2016-11-17
진흙속의연꽃

57. 잘 먹은 점심 한끼는

잘 먹은 점심 한끼는 삶에 활력을 줍니다. 가격과 무관하게 “잘 먹었다!” 라 여긴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점심을 성공으로 이끌었을 때 일도 잘 됩니다. 만족감과 포만감으로 사람을 접하였을 때도 넉넉합니다. 그러나 점심에 실패 하면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립니다. 점심을 잘 못 먹었을 때 일을 해도 잘 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불만스럽습니다.

입주해 있는 사무실 건물에 식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셀프식당’ 이라 합니다. 정식명칭은 ‘한맛셀프식당’ 입니다. 셀프라는 말은 부페식이라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셀프식당은 원래 출장부페를 전문으로 하던 곳입니다. 초로의 부부가 음식을 만들어 봉고차로 싣고 출장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난 수 년 동안 죽 지켜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세 달 전 음식을 만들던 자리에 식당을 연 것입니다. 물론 출장부페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출장부페나가고, 여자는 셀프식당 하는 것입니다.

입주해 있는 빌딩은 방이 3 백개나 되는 큰 빌딩입니다. 주로 사무실 용도입니다. 지어진지 20 년이 약간 넘는 오래된 오피스텔입니다. 2007년 말에 입주 했으니 이제 만 9년이 되어 갑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무엇을 해먹고 살까?” 고민하다 현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PCB Artwork’ 입니다. 고객회사로부터 전자회로도도를 받아 CAD를 이용하여 패턴(Pattern)설계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 가는 ‘인쇄회로기판’ 입니다. 이전에는 전자제품을 개발 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입주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내 가게 갖는 것이 소원이고 일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사무실 갖는 것이 소원이라는데 비록 임대이긴 하지만 소원 성취가 된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밤낮이 따로 없고 주말이 따로 없습니다. 머물러서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 말이 있듯이 글을 씁니다. 그런 세월이 벌써 9년 되었습니다.

점심 때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건물 지하 식당이 있지만 입맛에 맞지 않아 밖으로 떠 돌았습니다.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면서

식당순례를 해 보지만 혼자 먹기 때문에 환영 받지 못합니다. 점심 때가 대목인데 팬스레 테이블만 차지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느낌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수 백 명이 한꺼번에 식사 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로 향합니다. 대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셀프식당이 생기고 나서 저 멀리 대로변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지하로 내려가면 불과 수 분만에 점심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식당을 선호하게 된 것은 무엇 보다 ‘맛’입니다. 마치 집에서 ‘집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수 백 명이 식사하는 카페테리아와 달리 수 십 명이 식사 하기 때문에 차분한 느낌입니다. 오천원으로 행복을 만끽합니다.

셀프식당에서 식사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식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집에서 먹는 밥처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 해 주는 식당여주인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초로의 부부가 봉고차를 이용하여 출장부패를 전문으로 했는데 그 노우하우가 그대로 나온 듯 합니다. 여주인 혼자서도 음식 만들고, 식당정리 하고, 더구나 돈처리까지 하는데 일석 3조 역할을 합니다.

지하에는 식당이 세 개 있습니다. 어느 식당이든지 자주 이용하자는 주의입니다. 한 곳에만 자주 간다면 되는 집만 되고 안되는 집은 문을 닫을 것입니다. 맛이 없더라도, 청결하지 않더라도, 불친절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한끼 정도 이용해 주어야 할 아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가게 되는 곳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흔히 해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식당업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재산도 별로 없을 때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것이 음식업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온통 음식점 천지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육개월 또는 일년이 멀다 하고 간판이 바뀝니다. 모두 먹고 살게 해 주기 위해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돌아 가며 이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오늘도 셀프식당에 줄이 섰습니다. 아마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인근에서도 단체로 옵니다. 오늘 메뉴는 ‘쌈배추’입니다. 가장 좋아 하는 것입니다. 일반식당에 가면 맵고 짜고 달아 자극적입니다. 먹고 나면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극적인 맛의 식당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셀프식당의 경우 야채가 풍부하고 먹거리가 다양합니다. 매일 메뉴가 바뀌어서 “무엇을 먹을까?” 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먹은 점심 한끼는 오후 일을 위한 힘이 됩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웠을 때 그 힘으로 밀어 부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돈 내고 먹는 것이긴 하지만 정성들여 차려진 음식을 대했을 때 절로 감사의 마음이 나옵니다.

2016-11-22
진흙속의연꽃

58.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늘 바쁘게 살아 갑니다. 바쁜 이유 중의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매일 하루 한편씩 글쓰기를 서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일 때문에 오늘 못 썼다면 내일 두 편을 쓴다는 각오로 글쓰기에 임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녁 늦게 심야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쓰기도 일종의 집착일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집착은 좋지 않습니다. 집착은 결국 피로움을 유발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들은 “집착하지말라”고 말 합니다. 그러나 글쓰기에 대한 집착은 좋은 것이라 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논리가 서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매사에 논리적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유심히 관찰하게 되어 분석적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글쓰기를 하면 부수적으로 지식이 늘어나고, 기억력이 증대되고, 지혜가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을 치면 모든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재보시보다 범보시라 했습니다. 재산은 나누면 줄어 들지만 글은 나누면 늘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삶은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공유 했을 때 무량한 공덕이라 했습니다.

글쓰기 하느라 늘 바쁩니다. 한창 글쓰기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 온다든가 사람이 찾아 오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 건성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젠가 잘 살피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글쓰기에 눈이 팔려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원어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들락날락 하지만 한번 써 놓은 글은 영원히 남습니다.

일과 글쓰기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안되는 글쓰기입니다. 좋아서 쓰는 것입니다. 사실 글쓰기 만큼 재미 있고, 흥미진진하고, 스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창 글쓰기에 몰두 하고 있을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일로 인하여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만나면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술마시는 것은 고역입니다. 술이 약해서 조금만 들어가도 몹시 힘이 듭니다. 많이 마시면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 되어서 일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몇 번 이런 일을 겪고 나자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차담을 하면 더 나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회친구가 만나자고 했을 때 술자리가 부담스러워 주저합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불이익임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오더를 준다며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러 저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동창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등입니다. 폭넓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모임은 아닙니다. 몇 개 되지 않은 모임에서 참석요청받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한모임에서 총무직을 맡고 난 후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익과 불이익을 따져서 이익이 되면 참석하는 이기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임을 맡고 난 후 참여의 중요성을 알아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익을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 합니다. 시간이 돈인 세상에서 한번 움직였다 하면 시간과 돈과 정력이 낭비됩니다. 그런데 참석한 모임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개별적 만남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만나자고 했을 때 선뜻 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달려 갈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만남을 최소화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개 되지 않는 모임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매사에 손익을 따진다면 만남이나 모임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유불리를 따져서 소극적으로 임하면 사실상 고립적 삶이 됩니다. 정신과전문의에 따르면 고립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고립적 삶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고립적 삶이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와 동등하거나 나은 자가 아니면 사귀지 말라 했는데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다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느니 외롭더라도 차라리 홀로 길을 가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익 없는 만남이나 모임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대개 욕망과 분노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이익과 손해, 유리와 불리를 따지고, 만나기만 하면 험담을 늘어 놓는 사람들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욕망과 분노에서 멀어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즐겁고 유익합니다. 이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일이나 비즈니스가 아닌 친목모임에서는 ‘청정함’이 키워드입니다.

여러 가지 만남과 모임이 있습니다. 일대일 만남에서 요청되는 것은 청정 입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할 수 있다면 청정한 만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창모임, 종교모임, 동호모임 등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난 순수 모임이라면 역시 청정함이 키워드 입니다. 청정한 만남일 때, 사심이 없을 때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송년회의 계절이 왔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며 각종 모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수 많은 모임에 얼굴을 반드시 내비쳐야 할 것입니다. 손익이나 이해,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순수한 친목모임에는 반드시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기 청정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해나 손익,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찻잔을 앞에 놓고 차를 나누며 눈을 마주치며 대화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마음의 향상과 정신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이와 같은 청정한 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 합니다.

2016-11-30
진흙속의연꽃

59. 낮에 잘려 시든 갈대처럼

마음은 늘 과거에 가 있습니다. 대게 후회이기 쉽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또한 늘 미래에 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근심걱정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Anāgatappajappāya atitassānusocanā,
Etena bālā sussanti
naḷova harito lutoti.
Naḷavaggo paṭhamo.

“지나간 일을 슬퍼하고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시든다네.
낮에 잘린 푸른 갈대처럼.” (S1.10)

낮에 잘린 갈대가 있습니다. 잘리는 순간부터 시들해집니다.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 변색되어 노랗게 됩니다. 후회와 근심은 사람을 시들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위어 가게 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일로

지나간 시절을 회상해 봅니다. 즐거운 일 보다 괴로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후회입니다. 대게 “그때 그렇게 했었다면 좋았을텐데” 라며 후회 합니다. 세월호 부모들이 그 날 이전으로 되돌아 갔으면 좋겠다고 말 하는 것도 후회입니다. 후회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나간 일을 슬퍼하고” 라 했을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 괴롭고 슬프고 후회스러운 일이 대부분 입니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만족한다면 과거의 일로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 괴로움, 후회는 결국 불선(不善)한

것입니다. 결국 분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후회의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노에 지배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이 미래에 가 있으면 급해집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하며 “그렇게 돼야 하는데” 라며 초조해 합니다. 시에서는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는” 라고 표현 되어 있습니다. ‘애태운다’ 는 말은 ‘근심걱정한다’ 는 말과 같습니다.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이 있듯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욕망에 바탕을 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들은 무능한 대통령이 하루빨리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월호 일곱 시간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남편 또는 아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돈도 내 뜻대로 벌리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내 뜻대로 물러나야 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애태웁니다. 모두 욕망에 기반합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애태우는 것은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으로서 불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노와 욕망으로 사는

지난 일을 슬퍼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근심걱정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늘 지난 과거에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는 분노와 욕망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를 후회 하는 것은 분노에 뿌리내린 마음 때문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든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며 분노와 욕망으로 살아 갑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으면 분노와 욕망에 지배 받기 쉽습니다. 분노와 욕망은 불선법(akusala)이기 때문에 해로운 마음에 속합니다. 결국 마음이 늘 과거나 미래 가 있으면 불선업(不善業)을 짓기 쉽습니다. 마치 낮에 잘린 갈대처럼 갈수록 여위어 갑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다. 설령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더라도 후회나 근심의 마음이 없다면 분노와 욕망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하루 한끼만 먹고 살아도 얼굴이 맑고 깨끗한 수행자가 이에 해당 될 것입니다. 소욕지족(小慾知足)의 삶입니다.

분노와 욕망에 지배 받았을 때 슬퍼지고 애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늘 마음을 현재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 보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일어 났을 때 그 마음이 분노의 마음인줄 아는 것입니다. 애태우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욕망의 마음인줄 아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

알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태워 합니다. 따지고 보면 성냄과 탐욕을 뿌리로 하는 마음입니다. 탐욕과 성냄으로 살면 괴롭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으면 편치 않습니다. 낮에

잘린 시든 갈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지난 과거 일로 슬퍼하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로 애태워 하며 갈수록 여위어 갑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없이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

오늘 해야 할 일에 열중해야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 것인가?
대군을 거느린 죽음의 신
그에게 결코 굴복하지 말라.

이와 같이 열심히 밤낮으로
피곤을 모르고 수행하는 자를
한 밤의 슬기로운 님
고요한 해탈의 님이라 부르네.” (M131)

2016-12-02
진흙속의연꽃

60. 온풍기를 보내며



온풍기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하여 온풍기라 합니다. 선풍기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중앙 냉난방이 가동됩니다. 그러나 때로 온풍기와 선풍기를 필요로 합니다. 선풍기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 여름의 시작이고 온풍기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겨울입니다.

요즘 온풍기를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온풍기를 사용했습니다. 빨간색 모양의 온풍기 앞에 있으면 따뜻한 난로를 대하는 듯합니다. 어느 날 온풍기가 넘어졌습니다. 실수로 넘어 뜨린 것입니다. 넘어진 모습을 보니 처참했습니다. 마치 교통사고난 것처럼 두 동강이난 것입니다. 목이 부러졌는데 전선줄이 튀어 나오고 머리 부위가 덜렁덜렁했습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즉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온풍기를 잃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서 떠난 것들이 많습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던 디카도 어느 날 화면이 나오지 않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동작을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현존(現存) 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몇 일 전 천장사 염공선원이 불탔습니다. 불과 두 세 시간만에 잿더미로 변한것입니다. 현존하는 것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것은 무상(無常)합니다. 자연도 무상한 것이고, 세월도 무상한 것이고, 인생도 무상합니다. 지금 여기서 현존하고 있다고 해도 내일 이 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대개 3일장을 치룹니다. 죽은지 하루가 지나면 진물이 나고, 죽은지 3일이 되면 구더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한 자라도 생명기능이 끊어지는 그 순간 치워지는 대상이 됩니다. 온풍기 목이 부러졌을 때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듯이 죽은 자는 신속하게 치워집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다고 하여 영원히 현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온풍기 목이 갑자기 부러지듯이, 소리 없이 최후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제까지 형성한 재산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 온 궤적입니다. 무형의 행위입니다. 욕망과 부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 행위(業)만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최후를 맞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10년, 20년, 3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오늘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잘살았다” 거나 “행복했다” “후회없다” 라고 말하면 다행일 것입니다. 무탐(無貪), 무진(無瞋), 무치(無癡)의 삶을 살았을 때 최후의 순간은 축복일 것입니다.

“걸어가거나 서 있거나
앉아있든 누워있든,
최후의 밤은 다가오니,
방일할 시간이 그대에게 없다.” (Thag.452)

2016-12-12
진흙속의연꽃

61. 동짓날 이브날에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매일 부활하듯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오늘은 동짓날 이브입니다.
밤의 절정이자,
어둠의 엑스터시 전야입니다.

동짓날 긴긴 밤이라 합니다.
밤이 길면 새벽도 길어집니다.

게으른 자는 해 뜰 때까지
이부자리에서 꿈지락거립니다.
안락과 게으름은 동의어입니다.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다른 말로 안락,
또는 즐거움이라 합니다.
즐거움의 추구는 욕망에 기인합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즐기는데
전혀 게으르지 않습니다.

길고 긴 밤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자리를 박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올립니다.
일시에 세상이 밝아집니다.
무명에서 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해 뜨기 전 전조가 있습니다.
새벽이 되어야 해가 뜹니다.
동짓날 이브날 새벽,
사방에는 새벽 전조 조차 없습니다.
사방은 어둡이지만
무명의 방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2016-12-20
진흙속의연꽃

62. 우병우 청문회를 보고

밤 늦게까지 5차 청문회를 보았습니다. 이른바 ‘우병우’ 청문회입니다. 청문회장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고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두 겹, 세 겹의 전열을 뚫으려는 측과 이를 막으려는 측에서는 갑옷과 투구와 방패로 단단히 무장합니다.

증인석에 불러 나온 자들은 한결 같이 ‘모른다’ 거나, ‘아니다’ 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고 말합니다. 불리한 것은 부정하고 유리한 것은 적극 해명합니다. 때로 용기 있는 증언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거짓증언을 합니다.

어느 변호사에 따르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법정이라 합니다. 일상에서는 거짓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얀 거짓말이라 하여 때로 가벼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각 했을 때 “교통이 막혀서” 라는 말이 대표적 입니다. 그럴 경우 알면서도 속아 주는 것이 보통 입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입니다. 빌린 돈을 주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하는 자들의 특징은 약속은 잘 한다는 사실 입니다. 그러나 막상 약속

때가 되면 지키지 않습니다. 매번 약속을 하지만 매번 어기는 것이 거짓말쟁이들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약속도 지키지 않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모르쇠로 일관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꾸며대는 말입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합니다. 때로 증상모략도 하고 폭언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말로서 이루어집니다.

이제까지 법정에 한번도 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나 티브이 청문회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말과 말의 대결입니다. 공격하는 자도 말로 하고 수성하는 자도 말로 합니다. 진실을 밝혀 내기 위해 말이라는 창을 사용하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말이라는 방패를 이용합니다.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법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티브이에서 보는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전과정을 밤늦게 까지 지켜 보면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는 자의 표정, 어투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법정이나 청문회장에서는 진실만을 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앉아 있다가 증인으로 전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반드시 통과 의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선서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법정이나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대하여 아는 자들은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등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법정이나 청문회장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 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 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오계 중의 하나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계를 수지한다는 것은 불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삼보에 귀의 하는 것이 불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오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계식할 때 반드시 삼귀의 하고 오계를 받습니다.

수계할 때 “옴살바못자모지사다야사바하” 를 연신외치며 연비를 받습니다. 이때 오계를 포함한 48 가지 대승보살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때 뿐입니다. 범회할 때 삼귀의는 낭송하지만 별도로 오계수지맹세 서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라와다불교에서는 모든 범회에서 빠짐없이 오계준수 서약을 합니다. 오계를 항상 받아 지녀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받아 지닙니다.

한국불교와 테라와다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귀의 입니다. 한글삼귀의문에는 스님이 승보로 되어 있습니다. 스님을 부처님과 동급의 위치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테라와다에서는 상가가 승보입니다. 또 하나는 오계준수서약입니다. 한국불교에서는 수계의식할 때 오로지 한번만 오계준수 서약합니다. 그러나 테라와다에서는 범회할 때마다 받아 지닙니다.

오계준수는 범회 할 때 반드시 받아 지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삼귀의하고 오계를 받아 지녀야 불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불교에서는 어찌 된 일인지 변형된 삼귀의문을 낭송하지만 오계준수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스님들이나 불자들의 계행이 테라와다불교만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살아 있는 한 진실을 말하리라.” (S11.11)

2016-12-23
진흙속의연꽃

63. 누가 기득권자인가

나는 진보주의자일까 보수주의자일까? 그것도 아니면 중도주의자일까?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라면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보수주의자라면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당은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당일까요?

국회의원이 되면 이득과 명예와 칭송이 뒤따릅니다. 고시를 패스하여 등극하게 되면 역시 이득과 명예와 칭송이 뒤따릅니다. 소위 이 사회에서 출세 했다는 사람들 역시 이득과 명예와 칭송이 뒤따릅니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집착하면 기득권자라 볼 수 있습니다.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에 이념 스펙트럼이 있지만, 구성원들이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집착한다면 모두 기득권자일 뿐입니다.

한국에는 진정한 보수가 없다고 합니다. 있다면 ‘가짜보수’만 있을 뿐이라 합니다. 보수정당이라 하지만 기득권자들의 이익만 대변한다면 가짜보수정당입니다. 진보정당이라 하지만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집착하는 무리로 채워져 있다면 가짜진보정당입니다. 한국에는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당만 있을 뿐 진정한 진보와 진정한 보수의 가치 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정당은 없습니다.

행복한 자는 이 행복이 계속 유지 되기를 바라고, 불행한자는 이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득권입니다.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기득권이 계속 유지 되기를 바라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기득권 갖기를 희망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진보와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들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종교인에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수행승들이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집착했을 때 기득권자들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일부중(一部衆)은 지나치게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득권층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권력승’이 된 것입니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추구하는 자라면 누구나 기득권자이고 권력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진보와 진정한 보수는 기득권을 내려 놓을 때 구현됩니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꼭 붙들고 “지금 이대로 영원히!”를 외친다면 모두 기득권층입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기득권이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내게 이득과 명예와 칭송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이미 기득권자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명예를 여윈 위없는 안온을 얻는 데 장애가 된다.” (S17.1)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경고 했습니다.

“어떤 어부가
미끼를 단 낚싯바늘을
깊은 연못에 던지면
눈을 가진 물고기가
그것을 삼키는 것과 같다.”
(S17.1)

2016-12-29
진흙속의연꽃

64. 마음의 찌꺼기

“내년 초에는 꼭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결제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 여름 국민휴가철에 작업한 일이 있었는데 올해가 다 지나가도록 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연신 “죄송합니다.” 라며 조금만 참아 달라고 합니다. 개인카톡으로 답신을 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 준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답장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 많은 업체와 거래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계산서발행과 결재가 이루어짐에 따라 깨끗이 끝납니다. 그러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두고두고 마음에 남습니다. 아마 상대방도 그러리라 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털어 버리고 가야 합니다. 마음의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글에서 ‘마음의 찌꺼기’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받을 돈을 말 합니다. 누군가 내 돈을 빌려 갔을 때 갚지 않는다면 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불현듯 문득문득 떠 오른다는 것은

불선심(不善心)을 자극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가해자는 잊어 버리지만 피해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맞은 것, 부모님에게 야단 맞은 것, 친구에게 서운한 소리 들은 것 등입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지은 행위들입니다.

마음의 찌꺼기를 ‘한(恨)’ 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업(業)’ 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응어리진 것입니다. 영어로는 ‘콤플렉스(Complex)’ 라 합니다. 융의 분석심리학에 따르면 무의식 저편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림자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늘 숨기고 싶지만 자신도 모르게 발현되는 것은 맺힌 것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 많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일년 것을 모아 놓은 과일을 보니 오륙십장 되는 것 같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중에 남아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지출하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쪼들리는 근본 원인은 못 받은 돈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도 결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벌써 5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몇 십 만원도 결재하지 못해 찢찢매는 것을 보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도와 주는 차원에서 해달라는 대로 일을 다해 주었습니다. 이해가 다 지나가는 어제 받은 결재 했다고 전화로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 마음의 찌꺼기가 녹아 내리는 듯 합니다.

대게 결재가 이루어지면 깨끗이 잊어 버립니다. 일인사업을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수 없는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결재가 이루어졌을 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재가 이루어진 순간 그 일은 종료됩니다. 마음의 찌꺼기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고두고 마음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마음의 찌꺼기는 한이자 업과 같습니다. 내게는 한이고 상대방에게는 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찌꺼기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욕망과 분노와 무지에 기인 합니다.
천수경에서 “아석소조제악업 종신구의지소생
개유무시탐진치(我昔所造諸惡業 皆有無始貪瞋癡 從身口意之所生)” 라는
계송이 실감납니다.

마음의 찌꺼기는 털어내버려야 합니다. 찌꺼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악취가 풍깁니다. 탐, 진, 치로 오염된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똥은 조금만 묻어도 악취가 나듯이, 마음의 찌꺼기 역시 조금만 남아
있어도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결재가 이루어지는 순간 깨끗이
잊어버리듯이, 마음의 찌꺼기를 의식화 시켰을 때, 즉 알아차렸을 때
한이나 업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해 무수한 업을 지었습니다. 주로 ‘구업(口業)’입니다. 글쓰는
행위는 구업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편 이상 글을 썼으니
그만큼 구업지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의 글로 인하여 불편함과 불쾌를
가졌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올 한해가 가 지나갑니다. 한해 끝자락에서 지난 일년을 되돌아 봅니다.
글쓰기에 올인한 삶이 혹시 헛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받은 글쓰기로 보냈지만 헛된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글로 인하여 누군가 자극 받았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한해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글쓰기에 바친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계산서를 발행하여 결재가 이루어지면 돈이 들어 오지만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써 놓은 글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받은 글쓰기로 보냅니다. 시간은 가도 남아 있는 것은 글 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글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올 한해 역시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희다고 해서
그가 장로는 아니다 .
단지 나이가 들었으나
헛되이 늙은이라 불리운다.” (Dhp.260)

“죽음과 질병과 늙음,
이 세 가지는 화마처럼 다가온다.
항거할 만큼의 힘도 없고
도망칠 만큼의 빠름도 없다.” (Thag.450)

“하루를 적거나 많거나
헛되이 보내지 말라.
하룻밤이라도 낭비한다면,
그 만큼 그의 목숨이 줄어든다.” (Thag.451)

2016-12-31
진흙속의연꽃